

복음의 사람,
BLESS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Begin with Prayer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Listen with Care 경청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Eat Together 사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Serve with Love 섬김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Share your Story 전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물대풍상

The Well-Watered Garden
Vol.103 | 2023. 09.

대구제일교회
영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하나님께 예!예!예!

"어로서되 나와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자로 나와 연합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시편50:5)

영아부 7월 1일(토)~2일(주일), 100주년기념관 2층 영아부실
유아부 7월 15일(토)~16일(주일), 100주년기념관 3층 유아부실
유치부 7월 22일(토)~23일(주일), 100주년기념관 3층 유치부실

2023 대구제일교회 초등부 연합 여름성경학교

CORAM DEO 하나님앞에서

예배해요!

일시 : 2023.07.24(월) ~ 26(수) 2박 3일
장소 : 소망의 트락 (영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288)
대상 : 초등학교생 1 ~ 6학년

여름 수련회

중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대구제일교회 중등부

일시 07.23 - 07.25 (주일, 월, 화)
장소 포항 하정교회

대구제일교회중등부

경망당수당

대구 제일교회 2023 여름 고등부 수련회
일시: 2023. 07.27(목) ~ 29(토)
장소: 대구제일교회

세 겹 줄 공동체

2023 대구제일교회
초등부 여름수련회
2023.08.10 ~ 12 2박3일 두관마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대구제일교회 청년2부 여름 수련회

How?!

2023. 08. 17 - 19
화성 만결초

6 이르시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두시라 그26이면 참으라(마14:15)에 단결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뜰 수 없더라 7 배수에서 사람들이 배를 그 제자가 배드루에
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밧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갈보를 두른 후에 배를 위하여 (마14:12) (요 21:6-7)

Pum Community

염색

시인 나영자

그냥 주님으로
꼭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꼭 물이 들어 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발행인 박창운
지도목사 황천호
부장 양홍철
부부장 박문호
총무 이상원
회계 양선미
편집장 양홍철

편집위원
곽지예, 김승훈, 김원진, 박현아,
안주현, 이영숙, 이우형, 이주하,
최무진, 허균열
우제오, 박효윤
안지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전화 (053) 253-2615 ~ 7
팩스 (053) 253-2618
주소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으로
102길 50 (동산동)
발행일 2023. 09. 24.
홈페이지 www.firstch.org
이메일 fch_pub@naver.com

물대롱상

통권 제 103호
The Well-Watered Garden

소통의 장	여는 글	04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시편 31편 묵상) 박창운 위임목사
	목양부	06	'파자마'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김미진 집사
		08	시냇가에 심은 나무 순 조영란 집사
	새가족부	10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11	새가족 글 주님의 이고심으로! 박수연 성도
		13	새가족 글 새 가족 교육소감은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원 성도
	교회학교	14	교회학교 여름행사(영아부~청장년부)
	여전도회	32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7 여전도회, 근대화 골목 투어, 그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성희B 집사
	소식	34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40	교회소식
창립 130주년 기념 연재		41	우리교회에서 분림·개척한 교회(4)
선교		45	청년부 키르기즈스탄 단기선교 A beautiful step! 박상은 청년
		49	스리랑카 의교선교 보고 김민정B 집사
	관리부	51	본당 냉난방기 교체공사 보고 이재정 장로
	문화교실부	53	문화교실부 목공반 소감문 이진아 성도
	금요기도회	55	하나님의 뽀은 손! 그 손 잡으려 금요기도회로 ~ 최성민 전도사
	전도	56	어나더랭귀지 전도팀 대구제일교회 청년부 전도팀
삶과 신앙	우리 결의 이단	59	2023년, 온·오프라인으로 여전히 진화하는 포교전략과 대응 방안[3] 탁지원 소장
	신앙강좌	64	이단을 이기는 기독교 교리[3] 구원론 장규현 목사
		67	알면 도움 되는 기독교 교파 이야기[3] 한국 성결교에 대하여 서성준 목사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70	481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김위규 은퇴장로
	신앙논단	72	그건 안되지~ 홍정우 안수집사
		75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 정송희 권사
크리스천 문화	건강칼럼	77	두근 두근: 부정맥인가? 한성욱 집사



대구제일교회
박 창 운 위임목사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시편 31편 묵상)”

예기치 않는 거센 삶의 풍랑이 닥쳐오면 대다수 사람들은 허둥댁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거립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도와줄 친구와 가족을 생각하며 애써 고난을 침착하게 맞이하려 하지만, 좀처럼 불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은 그런 우리와 달리, 어려움에 봉착하면 곧바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풍랑을 타고 믿음의 항해를 벌입니다. 시편 31편에도 그런 다윗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시편을 한번 쪽 읽어보더라도, 다윗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음을 알게됩니다. “내 원수와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악인...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구설의 다툼... 경겁한 중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에게 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밀스럽게 다윗을 없애 하려 그물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들 나뭇의 모든 치밀한 작전을 짜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다윗을 없애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습니다(31:22)”라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31:10).

실은 이러한 다윗의 삶을 재구성하며 읽다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는지요?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던 건강검진을 통해 미래를 잃어버릴 것 같은 무거운 질병을 발견하기도, 걱정 없이 자랑스럽기만 하던 아이들에게서 많은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영원할 것 같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나의 미래는 늘 든든하리라 믿던 젊은 날의 모든 즐거운 노동의 대가가 불안하기 그지없는 재정 상태로 오늘을 주눅 들게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바로 그 어려움이 야기된 순간에 곧바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의지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31:14).” 어떤 고난이 와도 바로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분명히 의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 속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은 “감추어 둔 은혜”로도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고백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말에는 출애굽의 강력한 모티프가 숨어 있습니다. 광야 길 험한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은 지키시고 먹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온전하게 인도하셨음을 시인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의 기사로 연결하

여 보는 까닭은 78절에 나오는 시인의 노래가 출애굽기 3 장 7-8 절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31:7-8)” 이제 다음 출애굽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모든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러한 구절로 노래한다는 것은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 불렀다면,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신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행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향한 사랑을 쌓아두지 않으셨나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출애굽을 넘어 창세 전까지 올라갑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예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노래하였듯이 말입니다(엡 1:4-5). 모든 것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기까지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놀라운 사랑, 쌓아두신 사랑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입니다.

이제 22절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고난으로 잠깐 한탄의 말을 자신도 모르게 내뱉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기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시고,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고,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심을 노래합니다(7-8 절). 이 시편의 7-8절의 말씀은 과거,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도, 지금 그렇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알고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제게도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는 시편 139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원래 이 말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마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지 못한 것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아버지라서, 어머니라서, 목사라서, 교사라서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요!

어떤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가요? 우리가 힘겨울 때, 아플 때, 고난으로 전전긍긍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한 구절을 늘 가슴에 아로새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가장 힘들 때, 삶이 만만하지 않을 때... 사실 로마서 8장은 이 세상에 넘치는 고난을 이야기하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을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꼭 이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붙들던 하나님을 우리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 **불렙동상**

우리순 이야기

‘파자마’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너무 좋습니다!

(파자마 순, 순장 : 안지현 집사)



김미진 집사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제일교회 등록한 지 7년 된 김미진 집사입니다. 결혼해서 남편 따라 옮긴 교회는 사실 외로움투성이였습니다. 결혼 당시만 해도 남편(이재호 집사)은 영상부 직원으로 있었기에 친정 식구들과 함께 다녔던 모교회가 그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의 청년부 시절을 함께 하였던 집사님의 손에 끌려 순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말 그런 게 어디 있어.’ 했던 저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순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고, 일도 하고 있으니 평일에는 더더욱 어려운 순모임이었습니다. 지금은 순원들의 각자의 삶이 바빠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머지않아 저희 순도 매주 만나는 은혜가 있겠지요. 저희 순은 안지현 순장님 중심으로 박현아 집사, 양선미 집사, 이하나 집사, 홍연경 집사, 신윤희 집사, 양수진 집사, 저까지 8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 바쁜 주일 시간을 쪼개어

함께 Q.T를 하고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며, 모임을 가집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순원들의 기도까지 보태어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순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또한 순원들을 연결하여 주시고, 붙여주신 이유를 깨달으면서 영적 동지와 함께 채워가는 마음의 든든함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7세 아이를 양육하면서 청년 때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신앙이 바닥을 보일 때 쯤 지금의 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청년부 동기이자 지금의 순장님인 안지현 집사님과 남편의 청년부 때 함께 선교지 탐방을 다녔던 박현아 집사님의 배려로 공동 육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순모임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의 새신자였기에 누군지도 모른 채 매주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제가 남편은 속으로 안쓰러웠을 테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남편의 젊은 시절을 함께 하였던 청년부 회원분들 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저의 첫 육아 동지이자 저

를 공동체 안으로 꼭 붙잡아준 순모임 회원들 덕분에 습관성 큐티가 아닌 말씀 속에서 매일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기도의 틀과 하루 일과 중 시간을 정해 읽어 내려가는 말씀 묵상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공동체에 속해있다 새로 합류한 공동체가 혹여나 낯설게 느껴질까 자주 안부를 물어봐주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대구제일교회와 순모임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치던 저의 신앙은 순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복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순에서 함께 하는 큐티와 말씀 묵상 때마다 변함없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편하게

터놓고 나누고 기도하는 순의 이름 ‘파자마’처럼 순모임이 저에게 그렇게 친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혹시 신앙의 정체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교회 등록하시고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일단 순으로 오세요. 순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또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매일 매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저처럼요! **출렁출렁**



우리순 이야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순



조영란 집사(순장)

저희 순은 이제 막 6주 교육을 마치고 대구제일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하려는 새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 낮 11시 40분 본당 지하 1층 중등부 교사실에서 매 주일 순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순을 맡아보라는 목사님의 권유에 내가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 제가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새 신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들의 궁금증, 목마름의 해갈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저는 다시 신앙의 재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예수님과 교회를 새 신자들의 궁금증과 알려고 애쓰는 부분들을 통해 다른 각도에서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경험하고 기쁨에 찬 순원들의 간증과 삶을 나누며 미미하지만 했던 저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 보고 첫사랑의 기억을 더듬어 보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순모임 시간이 늘 기대가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늘 예수님과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순원들의 삶! 그대들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이혜리 성도

올해 1월 첫 주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가족부 교육을 받으며, 바나바 집사님으로부터 순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QT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일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모임을 할 때마다 다과를 준비하고 미리 연락주시는 순장님의 섬김이 깊은 감동을 주었고, 눈을 반짝이며 질문하고, 진솔하게 삶을 나누는 순원들의 이야기 속에서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말씀을 묵상해도 매번 비슷한 적용을 하며 내 한계에 갇힐수도 있었을텐데, 하나님은 순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더 확장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진아 성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순~♥ 저희 순은 시냇가에 심겨 물을 향해 뻗어가는 나무의 뿌리처럼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길 원하는 순원들의 모임입니다! 주일예배 후 순모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설교말씀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나 이외의 다른 순원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말씀을 느끼기도 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응원하는 교제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데요♥ 앞으로도 성령의 시냇물이 충만한 순모임이 되길 늘 간절히 바랍니다.

▶김도근 성도

먼저 사랑으로 섬겨주신 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순 자랑 살짝 해본다면 사랑스런 순장님 덕분에 함께 모일 때면 항상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5시간도 부족할 만큼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는답니다.

▶최진훈 성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만남을 하는 것이 저의 성향과는 맞지 않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라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순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순모임들의 대화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초심자인 저로서는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교류하고 고민하는 대화 혹은 토론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떠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사람들과의 주기적인 대화가 주는 일종의 안식과 힐링이 저에게 때때로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와 패션을 바꾸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매력도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귀뚜라미가 중요



한 단백질원으로서 식량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는 혐오식품이 되듯, 각자가 다른 문화를 가질 때 서로의 이해와 공통의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비종교인이 종교에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종교인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는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호기심이 순모임으로 이어지고 순모임에서의 소소한 대화와 고민에 대한 공유, 각자의 삶과 희노애락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공유는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보다 가치 있고 의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BLESS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종교적 신념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좋은 모임과 따뜻한 과정들이 함께한다면 저에게도 그리고 종교의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의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미희 성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가 처음에는 기쁨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해 누군가와 얘기해본 경험도 별로 없었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습니다. 처음 만나서 자신들만의 생각을 공유하고 듣고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게 이렇게 마음이 채워질거라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을 느꼈고 각자 다른 생각들을 얘기 나누면서 교회라는 공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초신자라 온전히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하게는 되지 않지만 순장님과 순원들의 신앙심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 불평등상

New family welcome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최연돈 이미정 _ 2교구 32구역



천수민 김예은 _ 1교구 2구역



박영란 _ 1교구 28구역



신채린 _ 1교구 2구역



권영수 박수연 _ 2교구 4구역



김흥수 _ 1교구 26구역



최교훈 _ 1교구 24구역



심영자 _ 4교구 15구역



전재홍 _ 4교구 32구역



송근희 _ 2교구 34구역



이명원 _ 2교구 10구역



장현희 _ 2교구 16구역



예병순 _ 4교구 11구역



이상원 최영자 _ 3교구 9구역



이미경 _ 2교구 19구역



서영아 _ 1교구 33구역



이재성 _ 4교구 15구역

새가족 글

주님의 이끄심으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3:16)” 몇 년 전 매주 예배 설교의 시작에 박창운 담임목사님이 읊어주시던 성경 구절로, 하루에 몇 번씩 꺼내어 잠잠히 읽어 보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가득 담아내는 이 곳, 제일교회를 다닌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어 여태껏 다닐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끄심’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골에 위치한 작은 개척교회를 초등학교 6학년부터 다녔습니다. 작은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와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의 새가족이 되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이끄심으로 올해 2월 마침내 새가족부에 등록하고 제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3살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은 비(非) 그리스도인입니다. 19년도 결혼 후 한 달에 한 번씩 예배에 함께했는데 코로나19



박수연 성도 가족

의 시작과 저희 가정에 아기가 생기며 자연스레 교회로 향하던 발걸음이 끊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잠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자며, 쉬었던 시간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된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제일교회 새가족 등록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남편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남편의 대답을 듣곤 단단했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좋은 본을 보인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안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계획이라면 부디 한 말씀만 달라며 며칠을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평소와는 다르게 아들 선우가 물을 달라며 큰 소리로 울며 떼를 썼습니다. 그 때에 제가 “선우야, 아빠가 주신다! 아빠가 주신다!”를 두 번이나 외쳐 말하는데, 그 순간 남편을 인도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놀랍게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새가족부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가족 글

새 가족 교육소감은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원 성도

2월부터 현재까지 저희 가정에는 작지만 아주 크고 감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남편과 함께 사순절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둘째, 식전 기도예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을 외치고 식사합니다.

셋째, 가끔은 설교 말씀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일상을 덧붙여 이야기 합니다.

넷째, 작은 일에도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제일의 가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내 일처럼 기뻐해 주신 바나바 이영숙 권사님과 6주간의 교육동안 각기 다른 간증들로 저희 가족에게 좋은 말씀 나누어주신 새가족부 선생님들, 더운 땀별 아래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저희 가족을 맞아주신 주차봉사팀, 예배 후

“(박창운 담임목사님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엄마, 하나님 어디갔어? 하나님?” 하고 외쳐 묻는 아이에게 싱긋 웃으며 다가오셔서 새끼손가락 걸고 축복기도 해주신 담임목사님이 계셨기에, 저희 가정이라는 작은 씨앗을 제일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한 감동이 저희 남편과 아이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내 목적과 뜻, 계획, 시간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시간을 순종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그 선택하신 뜻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림으로 받아들이며 제일교회 안에서 진정한 누림과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등상

저희 부부는 2023년 6월 4일 새 가족 등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들(이동희 성도)이 다니고 있는 대구제일교회에서 한 가족 한 교인으로 함께 신앙 생활하는 것을 좋게 여겨서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새 신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느지막이 대구제일교회에 와서 새롭게 맞게된 교육기간의 소감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6월 11일 제1차 교육이 시작되어서 지정된 자리에 갔습니다. 강사이신 신동숙 권사님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는데 권사님이 건네준 '새 가족 양육교재'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제1주 차 강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관계로부터 시작”이란 과제였습니다. 권사님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저한테 “구원이란 무엇인가?” 문기에 간단하게 예수 믿고 얻게 되는 은혜가 구원이라고 하였더니, 반쯤 맞다고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인류구원과 사랑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새 가족 6주간 교육은 목사로부터 기신자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예외 없이 받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수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5차까지 교육과정에서 다룬 주된 내

용은 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구원 2)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의 사귄다 참여 및 헌신관계 3)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영적성장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과제이면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귄다 참여로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영적 성장을 이루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며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스스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친절봉사와 헌신적인 새 가족부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마침내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2023년 7월 30일 2부 예배에서 새 가족으로 교우님들에게 첫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 6주 교육과정에서, 제1주를 담당하신 신동숙 권사님, 제2주 김영숙 B 집사님, 제3주 이영숙 권사님, 제4주 금현주 권사님, 제5주 홍정우 안수집사님 등 여러분의 정성 어린 강의에 감사드리며 제6주에 축복 기도를 해주신 이태연 목사님과 제3교구장 장규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대구제일교회 일원이 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돌보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불평등상

행사순서

첫째날

9:30 ~ 10:00 등록

10:30 ~ 10:45 찬양 과 율동

10:30 ~ 10:45 여는예배

10:45 ~ 11:10 찬양 과 율동

11:10 ~ 12:30 특별활동

12:30 ~ 광고, 사진촬영 및 식사후 귀가

둘째날

11:10 ~ 11:30 찬양 과 율동

11:30 ~ 11:45 마치는예배

11:45 ~ 12:10 특별활동

12:10 ~ 12:15 주제찬양 율동

12:15 ~ 마무리 인사 및 귀가

2023 여름성경학교

하나님께 예!예!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시편50:5)



온 세상이 푸릇푸릇 여름어가는 여름,
“하나님께 예!예!예!”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변화 될
자녀의 모습을 기대하며,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일시 : 7월1일~7월 2일
장소 : 대구제일교회 영아부실
주요행사 : 예배 및 성경학교 프로그램
준비물 : 갈아입을 옷과 개인 물
문의 : 각반 담임선생님

대구제일교회 영아부



신호은 선생님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물감으로 톡톡 물감 놀이를 했습니다. 다 함께 힘 모아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교 주제인 ‘하나님께 예!예!예!’를 색칠했습니다. 아가들이 예쁜 색깔과 톡톡 두드리는 촉감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주 좋아했습니다.



신호은 선생님

기도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를 순서대로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가들은 물론 엄마 아빠도 쉽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수진(김새은, 김나은 어머니)

예배실에 들어서자 신나는 찬양과 함께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각각 자기의 느낌과 몸의 움직임대로 찬양하며 율동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던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 경충경충 뛰며 춤추었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선물 같은 아이들의 율동 솜씨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더욱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진(김새은, 김나은 어머니)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언약궤와 아버지들의 연기로 만들어진 연극은 아이들 모두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었고, 다윗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가지고 온 학기를 연주하며 기쁨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연극 시간이었습니다.



김수진(김새은, 김나은 어머니)

여러 개의 풍선이 모인 길을 조심조심 걸으며 예수님께 안기는 시간은 우리 믿음의 걸음과 닮았네요. 아이들이 삶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끝까지 나아가길 소망해 보았습니다.



김수진(김새은, 김나은 어머니)

마치는 예배 후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우리 영아부의 주인공인 아가들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아버지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성경학교가 시작하기 전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율동을 연습하고 연극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로 동참하였고, 아버지들의 율동 시간 덕분에 아이들은 더 신나고 즐겁게 찬양을 즐기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 시편 50:5 -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2023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시간	내용
9:30~10:00	점수 및 등록 자유놀이 (색칠하기/뒤편놀이/대형퍼즐 등)
10:00~10:30	찬양 및 율동
10:30~11:00	여는 예배 "기뻐하며 예배해요"
11:00~11:20	성경학습 1과
11:20~11:40	1과 연계활동 "예!예!예! 찬양하는 우리" (마리카스 만들기)
11:40~12:20	남남~ 맛있는 점심식사 ^^
12:20~12:40	1. 하나님께 예!예!예! (공놀이)
12:45~13:05	코너 학습 (각20분)
13:10~13:30	2. 두드리며 예배해요 (톡톡물감)
13:30~14:00	3. 예!예!YEAH! 다짐해요 (아광팔찌)
14:00~	가득가득 채워요 예하와 다예를 찾아라! (물총놀이)
14:00~	집으로~!



2023 여름성경학교

하나님께 예!예!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시편50:5)

온 세상이 푸릇푸릇 여름이 오는 여름,
"하나님께 예!예!예!"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일시 : 2023년 7월 15일(토) 10:00 ~14:00
16일(주일) 11:30~12:40

장소 : 유아부실
주요행사 : 예배, 찬양과 율동, 성경학습, 코너활동, 물총놀이 등
준비물 : 여벌옷과 수건
문의 : 각 반선생님, 또는 김현전전도사님(010-7248-7773)
이경애 부장선생님(010-8576-7188)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일교회 유아부



문하늘 가정

이번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리며 가정에서도 찬양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이는 성경학교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찬양과 율동이라 말합니다. 저(아빠) 또한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성극으로 섬길 수 있어 감사했으며 성극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자녀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준비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진이한 가정

성경학교는 이한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교 수업 때 입었던 파란색 '하나님께 예예예'라고 쓰인 티를 어찌나 좋아하던지 집에 와서도 벗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에 여간 즐거운 시간이었던 생 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항상 성경학교에서 배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기억하며 이한이가 하나님의 아이로 잘 성장하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김하빈 가정

여름성경학교 첫째 날, "하빈아, 여름성경학교 어땠어?" 엄마의 기대감 가득한 눈빛에 "팔찌도 만들고, 선생님도 좋고, 치킨 이랑 김밥도 먹었어. 또~"라며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답했던 게 기억납니다.

여름성경학교만으로 하나님을 모두 알아가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의 경험이 쌓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함께 전하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천시원 가정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시원이 대구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처음 맞이하는 성경학교라서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예예'라는 주제로 찬양, 설교, 활동 등으로 채워졌고 그중에서 시원은 다양한 활동들을 즐거워했습니다. 공놀이와 톡톡 물감놀이와 비즈 팔찌 만들기를 통해 놀이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다시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은찬 가정

은찬이는 마지막에 닫는 예배에서 촛불을 모아서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어 본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네요. 집에서 나눠주신 전자 초를 한참 어딜 가든 꼭 챙겨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은찬이가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지 관심이 생겼 거 같습니다. 은찬이가 호기심을 가질만한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시우 가정

시우의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눈이 뜨게 자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우에게 다윗의 언약궤 말씀과 기도, 찬양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이후 시우의 입에서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았고 유치원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얼마나 전하고 다녔는지 엄마들에게 현악이 올 정도였습니다. 1박2일 짧은 시간 동안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순수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3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일정표

일정표	7/22(토) 첫째 날	7/23(일) 둘째 날
9:00 ~ 9:20	교사 경건회	교사 경건회
9:20 ~ 9:30	컵수 및 등록 (이름표 및 티셔츠 배부, 주제가 영상)	어린이 맞이 (성경학교 주제가 영상)
9:30 ~ 10:20	인형극 <여는 예배> 하나님께 예!예!예! (설교 : 서성준 목사님)	<주일 예배> 함께 예배해요. (성경학습 2과)
10:20 ~ 10:30	<찬양 및 영상> 간식먹고 이동	<연계활동> 요리 : 그릭요거트 파르페 함께 만들기
10:30 ~ 11:50	말씀 말씀해 주세요. 찬양 하프로 찬양해요!! 기도 기도터널 통과하기 헌금 헌금주머니 만들기	
11:50 ~ 13:00	점심식사	
13:00 ~ 14:30	< 성경학습 1과 : 기뻐하며 예배해요 > *연계활동(1팀) : (영음녹이기) : 예화와 다예를 찾아라	*연계활동(2팀) : (올채우기) : 가득가득 채워요
14:30 ~ 15:00	찬양 및 간식	
15:00 ~ 15:30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회 및 귀가	

대구제일교회
영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하나님께
예!예!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시편50:5)

영아부 7월 1일(토)~2일(주일),100주년기념관 2층 영아부실

유아부 7월 15일(토)~16일(주일),100주년기념관 3층 유아부실

유치부 7월 22일(토)~23일(주일),100주년기념관 3층 유치부실

유치부 청년 선생님들이 “아기토끼 삼형제” 연극을 보여주셨어요. 준비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서로 시간 내 준비한 여는 예배 시작 전 이벤트 정말 대성공!!! 우리 유치부는 다재다능한 청년 선생님이 많이 계셔요^^

췌! 이제 성경학습 시간이예요. 6세 반인 소망반에서 “기뻐하며 예배해요”라는 제목의 성경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친구들도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다짐했어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바닷속으로 풍덩~빠질 것 같은 시~원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시작!
‘하나님께 예!예!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경학교 개회예배에 서성준 목사님께서 설교해주셨어요. 유치부 친구들이 바른 자세로 귀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5.6.7세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서 모습을 갖추려 함께 예배하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랍니다. 특별활동 시작 전 단체 사진 찰칵!!!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해요. 통 하단부에 이번 성경학교 마스코트인 예화와 다예를 물을 채워서 상단부에 있는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게임이에요. 매일매일 예배하며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친구들이 되기로 했어요.

얼음 속에 갇힌 예화와 다예를 물총으로 녹여서 꺼내주어야 해요. 서로 함께 도와가며 열심히 물총을 쏘 예화와 다예를 구해내어 함께 예배하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 시원한 물총놀이~ 시원하겠지요. 짧은 물총놀이 시간이 아쉽기만 하네요.

교회학교 여름행사

초등부 연합 여름성경학교

기쁨으로 예배해요 믿음으로 예배해요 모두 함께 예배해요

초등부 연합 여름성경학교

<2023 초등부 연합 여름성경학교 일정표>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일시 : 2023.7.24(월) ~ 26(수)
장소 : 소망의 트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288)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7:00	기상	
7:30	굿모닝 올림픽 ①	굿모닝 올림픽 ②
8:00		
8:30	아침식사	
9:00	하나님께 찬양 >	
9:30		
10:00	성경학습 ①	퀴즈
10:30	(모두 함께 예배해요!)	
11:00	(코너학습)	파송예배
11:30		
12:00	점심식사	
13:00	하나님께 찬양 >	- 교회로 이동 -
13:30	점심식사 & 집정리	
14:00	하나님께 찬양 >	
14:30	여는예배	
15:00		
15:30	O.T.	
16:00	레크리에이션	
16:30		
17:00	성경학습 ①	삶의 예배자로
17:30	(기쁨으로 예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18:00	저녁식사	
18:30		대구제일 초등부 친구들이
19:00	장기자랑	되어요♥
19:30	성경학습 ②	
20:00	(함께로 예배해요!)	
20:30	찬양과 기도	
21:00	캠프파이어	
21:30	내일을 위해 꿈나라로!	내일을 위해 꿈나라로!
22:00	취침 & 교사 모임	취침 & 교사 모임

2023 대구제일교회 초등부 연합 여름성경학교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 일시 : 2023.07.24(월) ~ 26(수) 2박 3일
· 장소 : 소망의 트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288)
· 대상 : 초등학생 1 ~ 6학년

문의
초등1부: 홍우 집사 010-5957-7542 / 조다은 전도사 010-4747-0205
초등2부: 홍우 유복순 집사 010-5267-7542 / 김주영 전도사 010-4443-2974
초등3부: 홍우 010-6573-0908 / 박동성 전도사 010-4221-5789
초등4부: 홍우 박영희 집사 010-8596-7226 / 송다은 전도사 010-9535-5308



이하나 집사(초등3부 선생님)

2박 3일 간 식사는 솜씨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수고로 매 끼니가 특식이라고 할 만큼 맛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되었습니다. 짜장밥, 달걀, 전복죽, 삼겹살구이, 불고기덮밥, 목살스테이크~ 얼마나 잘 먹었는지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증량되었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하나 집사(초등3부 선생님)

우리 아이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진짜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기뻐하게 찬양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하나 집사(초등3부 선생님)

휴난히 긴 장마, 뜨거운 기온으로 여름이 더 길게 느껴진 여름~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무려 초등 1, 2, 3, 4부가 연합하여 200여 명이 2박 3일 간 성주 소망의 트락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하나 집사(초등3부 선생님)

찬양, 여는 예배, 성경학습1,2, 찬양, 기도... 다채로운 신앙성장 프로그램이 자진모리장단 급으로 휘몰아치며 말씀, 기도, 찬양 시간으로 꽉꽉 채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게임, 유튜브 생각 한번 한 날 만큼 말씀을 듣고 익히고, 신 나게 찬양하였습니다.



이하나 집사(초등3부 선생님)

더위를 물리치는 시원한 물놀이, 물놀이 중 먹는 꿀맛 컵라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우리의 마음과 같은 캠프파이어, 성경학습과 눈물로 함께 한 기도회까지 초등부 연합 여름성경학교의 둘째 날도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



이하나 집사(초등3부 선생님)

삼 일간 모든 열정을 다 쏟아 시간을 보낸 만큼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대부분 며칠을 앓았죠. 힘들어서 다시는 안 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유튜브, 게임, 그 어떤 캠프보다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아이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 일정으로 망설이다가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놓친 친구들이 있다면, 내년 여름 성경학교는 꼭 참여하여 천국을 맛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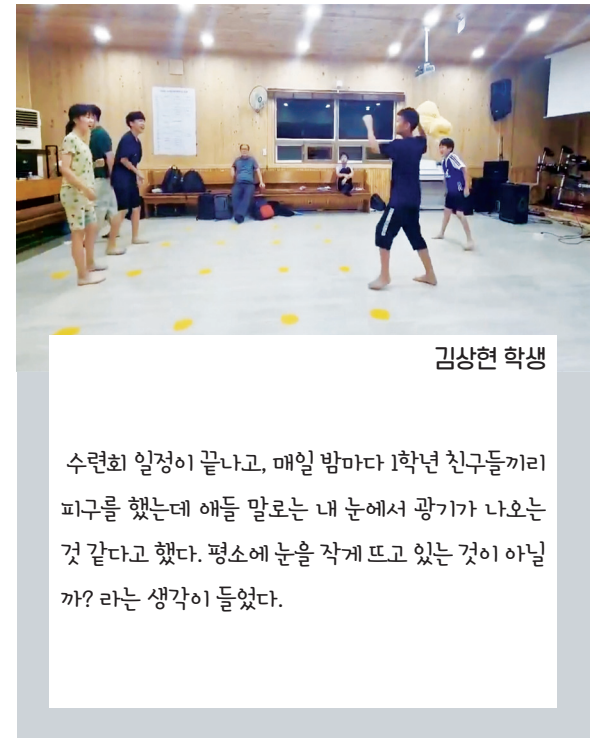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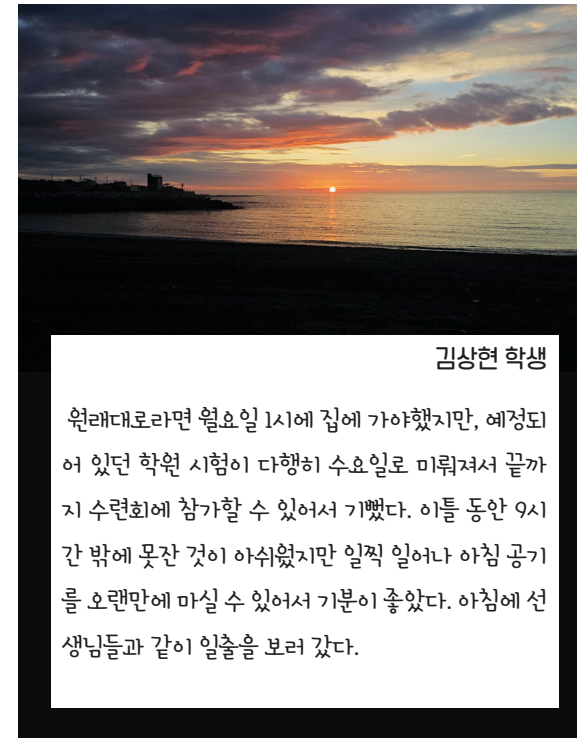
중등부 수련회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
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 대상 14:16~17 -

중등부 수련회

2023년 대구제일교회 하계수련회 일정표

TIME	23일(주일)	24일(월)	25일(화)		
08:00~09:00		기상 및 아침식사	기상 및 아침식사		
09:00~10:00		QT 및 찬양	QT 및 나눔		
10:00~11:00		레크레이션	짐 정리 및 청소		
11:00~12:00		점심식사	나를 알아가는 시간 (기질검사)	폐회 예배 및 시상	
12:00~13:00	하정교회로 이동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4:00		신나는 물놀이	집으로 다시 세상으로		
14:00~15:00	레크레이션 1				
15:00~16:00					
16:00~17:00	조별 대항전				
17:00~18:00	저녁식사 및 휴식	저녁식사 및 휴식			
18:00~19:00					
19:00~20:00	달빛마을 찬양콘서트	저녁 집회			
20:00~21:00	광고	캠프파이어			
21:00~22:00					
22:00~23:00	정리 및 취침	광고 및 취침			
23:00~24:00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등부 수련회로 하정교회에 갔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정교회가 산속에 있었다. 다행히 걱정했던 모기는 물리지 않았다. 숙소 근처에서 1시간 30분 정도 말쑥꾸러기들이랑 놀고 와서 숙소에 들어갔다.



남자 숙소는 개방되고, 여자 숙소는 잠글 수 있어서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잤다. 다음 번에는 우리에게도 좋은 보안(?)의 숙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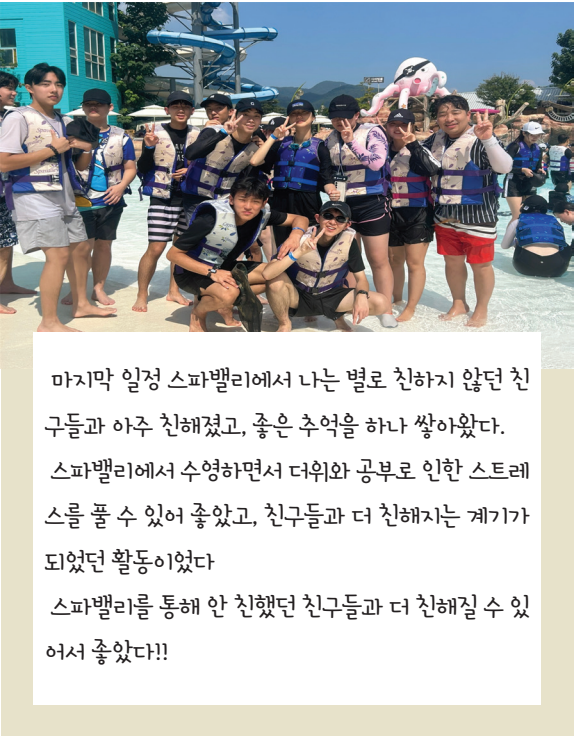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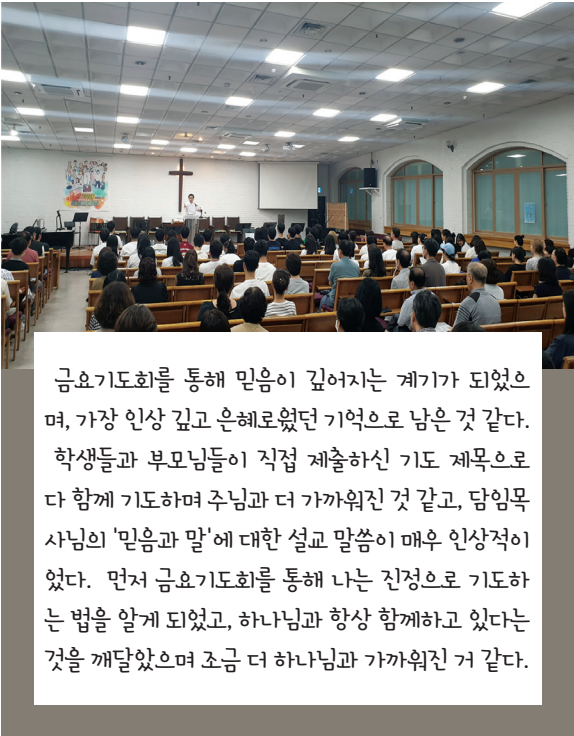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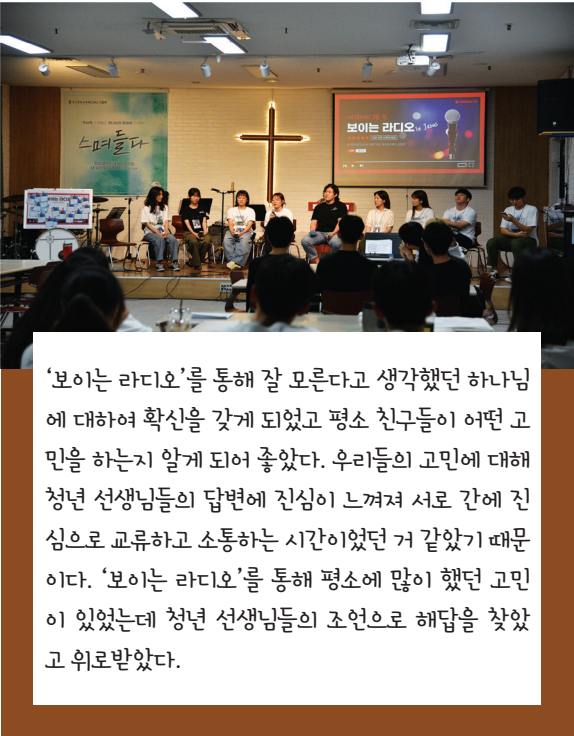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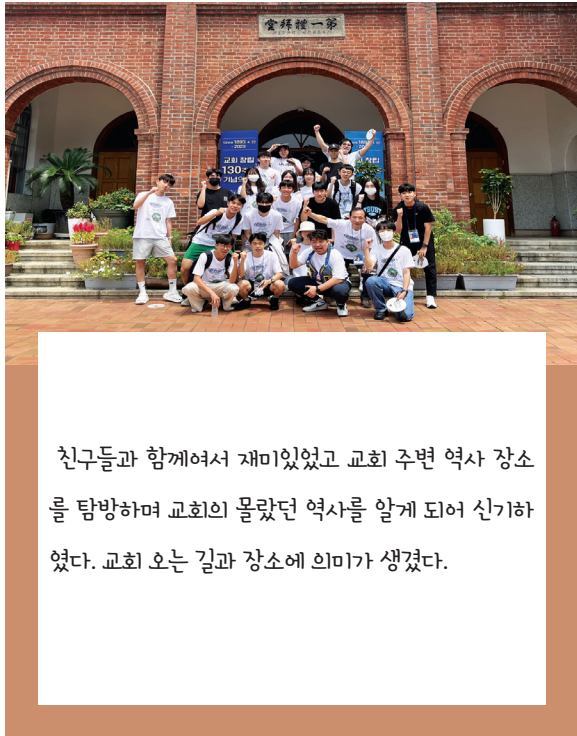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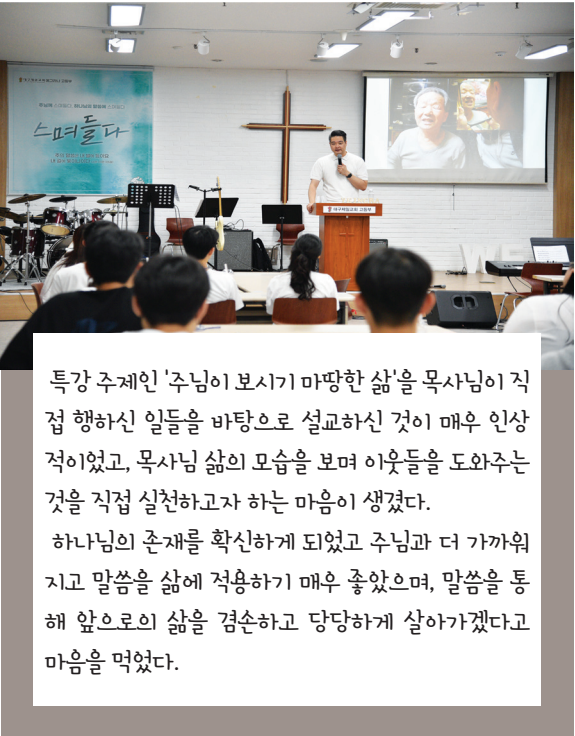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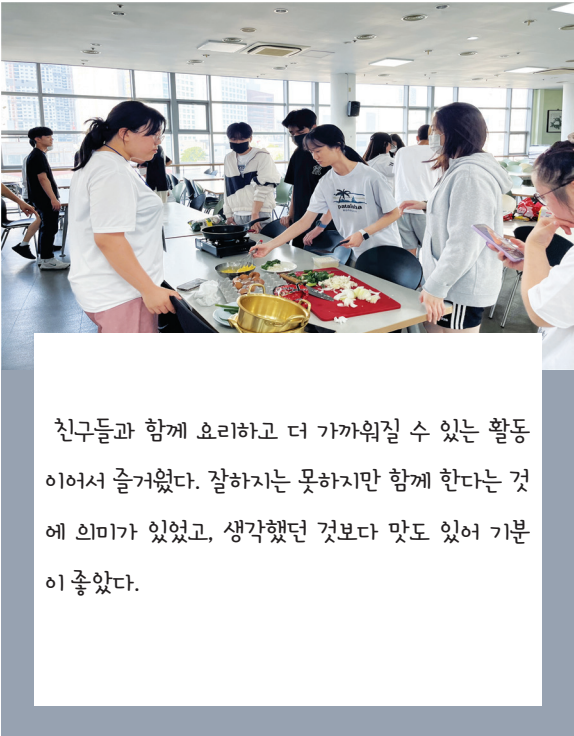


둘째 날 오후 하정해수욕장에 가서 했던 물놀이 시간에 다이빙을 열심히 한 덕분에 신발에 모래가 잔뜩 들어갔다. 친구들한테 모래 뿌리며 장난도 치고, 모래로 덮기도 했다. 확실히 친구들과 하는 물놀이가 더 재미있는 것 같다. 다음에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날 밤 저녁 집회 후 캠프파이어를 하러 가는 길에 멧돼지를 봤다. 나는 분명 멧돼지가 지나가는 모습도 봤고, 멧돼지가 '크르릉' 하는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멧돼지를 봤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아서 억울했다. 청년부에서 중등부 수련회를 도와주러 오신 이주한 선생님도 재미있고 착했다. 2023년 여름수련회가 가장 재미있는 여름 여행이 된 것 같다.

시간	7월 27일(목)	28일(금)	29일(토)
7:00		기상, 체조, QT	기상, 체조, QT
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9:00		찬양	찬양
10:00		교회130주년기념 투어	롤링페이퍼
11:00			시상 및 닫는 예배
12:00		조별점심	물놀이
13:00	등록		
14:00	시작예배 및 OT		
15:00	조별모임		
16:00	공동체훈련		
17:00			
18:00	저녁식사		
19:00	말씀기도집회	저녁식사	
20:00		금요기도회	
21:00			
22:00			
23:00	취침시간		
24:00			



2023 대구제일교회 청년부 여름수련회 in 지리산 두레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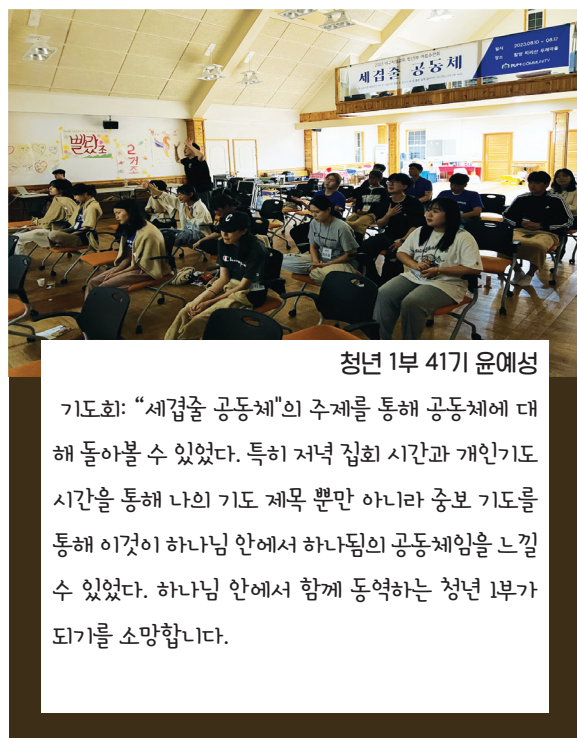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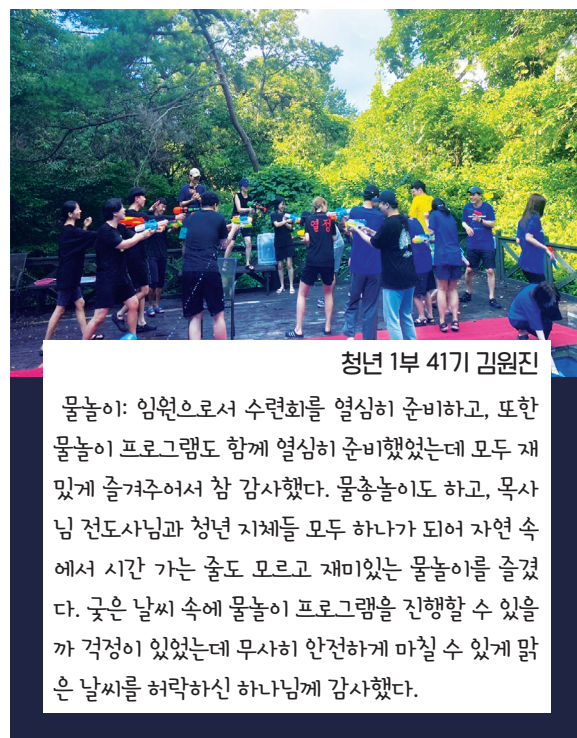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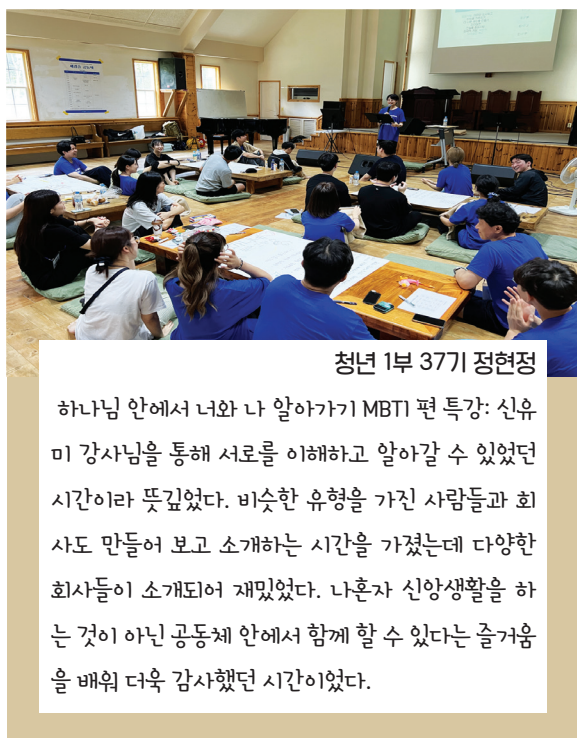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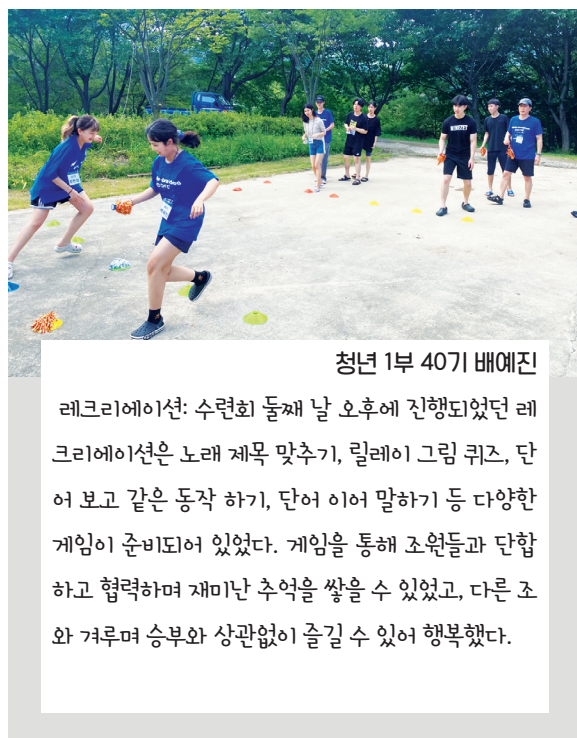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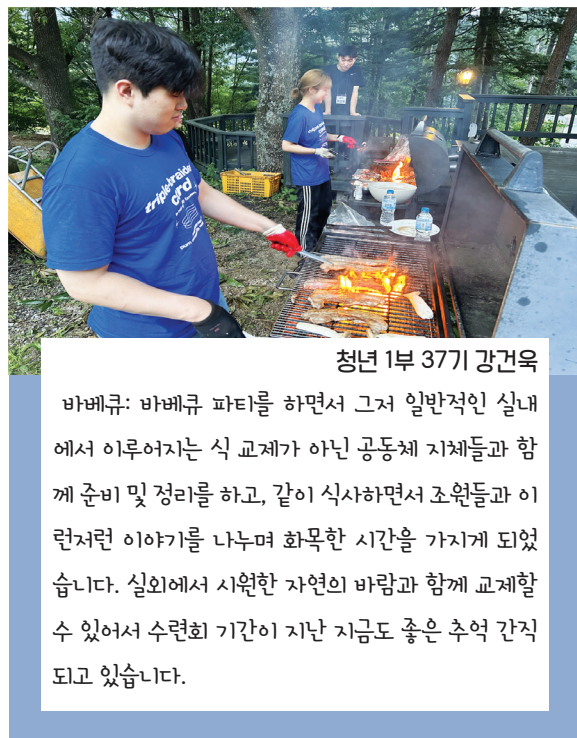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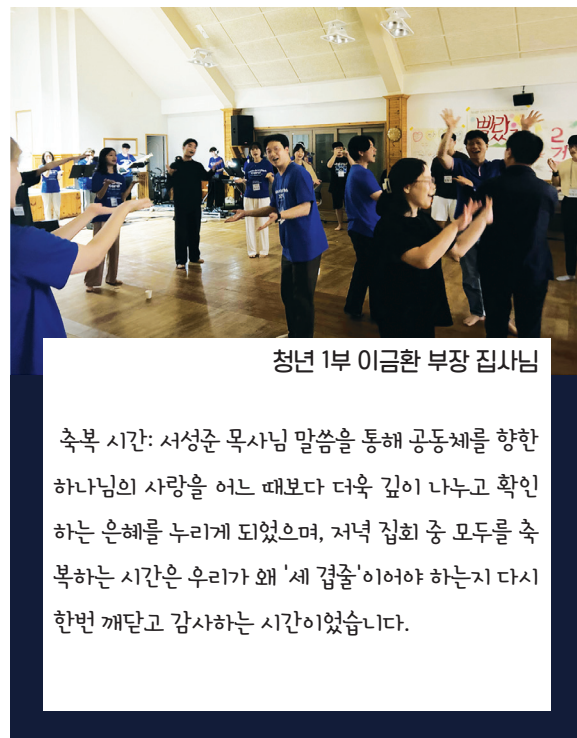
세겹줄 공동체

TIME TABLE

시간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08:00	오후 1시까지 교회로 !!	아침 묵상	아침 묵상	
09:00		아침 식사	아침 식사	
10:00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 알아가기 MBTI편 (신유미 강사님)	함께 뛰는 예배	
11:00				
12:00				
13:00	함양 도약 및 청정리	정식 식사	세상 속으로 !!	
14:00	레크레이션			
15:00		에이스 브레이킹 time		
16:00				
17:00	가장 많이 먹어야 하는 시간 (바, 베, 쿼)			
18:00	저녁 식사	저녁 집회 (서성준 목사님)		
19:00	저녁 집회 (서성준 목사님)			
20:00				
21:00				
22:00		저녁 집회 (서성준 목사님)		
23:00	취침 !!	취침 ??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교회학교 여름행사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 요한복음 21:6~7 -

청년2부 수련회

청년2부 수련회

2023 청년2부 여름수련회

How?!

2023.8.17.(목) ~ 8.19.(토)

17일 (목)	18일 (금)	19일 (토)
	8:00 기상 & 묵상 (강당)	8:00 기상 & 묵상 (강당)
	8:30 아침 식사	8:30 아침 식사 및 집 정리
	9:30 특강 (강당) '5가지 사랑의 언어' [이은숙 강사님]	9:30 원 투 원
11:50 정류홀로 모여요!		10:30 진짜 아는 예배
12:00 간단식 & 출발 [의정 안경선]	12:30 점심 식사	11:30 집으로
14:30 여는 예배 & O.T (강당)	14:00 공동체 프로그램 (마당 / 수영장)	
15:30 친해지길 바래 (강당)	17:00 휴식	
17:30 휴식	18:00 저녁 식사	
18:00 저녁 식사		
19:10 집회 I (강당) [송주현 목사님] · 경배와 찬양 · 말씀 · 기도회	19:30 집회 II (강당) [서정준 목사님] · 경배와 찬양 · 말씀 · 기도회 · 개편 기도 · 엘리브레이션	
22:10 마무리 & 취침	24:10 마무리(마침) & 취침	



이은숙 강사님 특강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내 사랑의 언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없이 눈 맞춤만 하는 것으로도 여러 가지가 전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주위의 여러 방식의 사랑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 프로그램 및 물놀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재미있었어요. 생각보다 다들 물총 싸움과 물놀이에 진심이더라고요! 비가 엄청 왔는데 비가 와서 더 좋았어요. 한 좋은 날씨마저 좋게 느껴질 만큼! 더위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해지길 바래

조별로 소개하고 역할을 정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이조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림 끝말잇기 활동이 새롭고 재미있었고 처음 만난 분들과 게임을 통해 어색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이 너무 웃겼어요!



송주현 목사님 특강 "성공이 아니라 성경"

목사님의 삶의 간증을 통해 순종하는 삶에 대해 도전 받았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이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옵션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수고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뀐 가치 체계에 따라 선택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 와닿았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집회 및 기도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로 떠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런 나조차도 떠나지 않으시고 찾아와주시며 안아주시는 주님께 다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뛰고 춤추고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전체 소감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삶과 회복을 가지고 싶었는데 정말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평소 얘기하지 못하는 친구, 동생들과 더욱더 하나가 되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그저 좋았다고 끝나는 수련회가 아니라 말씀 들으며 도전받았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순서 시간 하나하나 생각하며 준비해준 목사님과 임원분들, 찬양팀에게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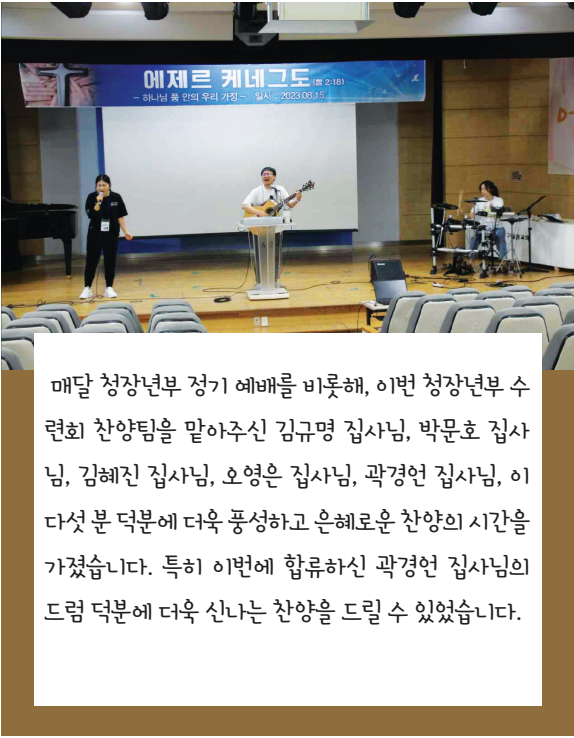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창세기 2:18 -

청장년부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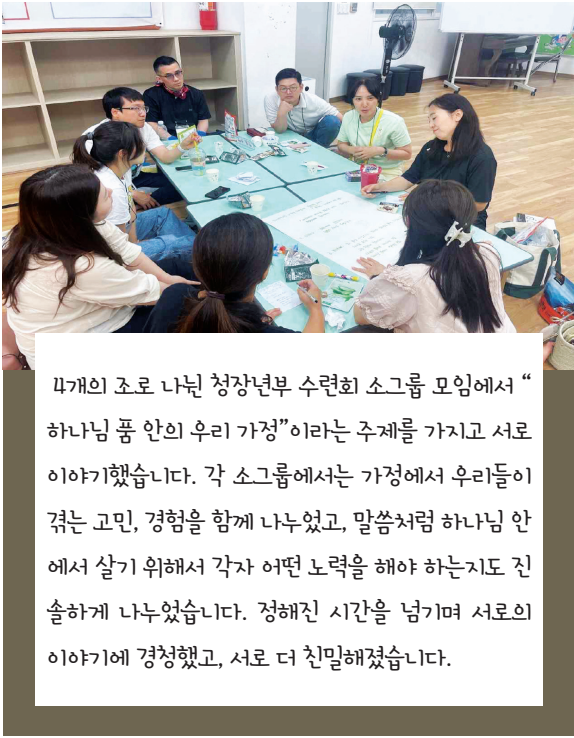
청장년부 수련회

T/I/M/E	T/A/B/L/E
프로그램	T.I.M.E.
등록 및 명찰 배부	13:00~14:00
여는 예배 메시지 에제르 케네그도1	14:00~15:00
O.T / ICE BREAK(조 모임 I) 조발표	
레크리에이션 ① 단체빙고 ② PPT게임인물퀴즈 ③ PPT게임중인 ④ 놀라운815	15:00~16:00
GBS 주제 하나님 품 안의 우리 가정	16:00~17:00
찬양 & 말씀콘서트 GBS나눔(발표) 메시지 에제르 케네그도2 기도회 기도제목 ① ② ③ ④	17:00~18:00
저녁 식사	18:00~19:00

하나님 품 안의 우리 가정 일시: 2023년 8월 15일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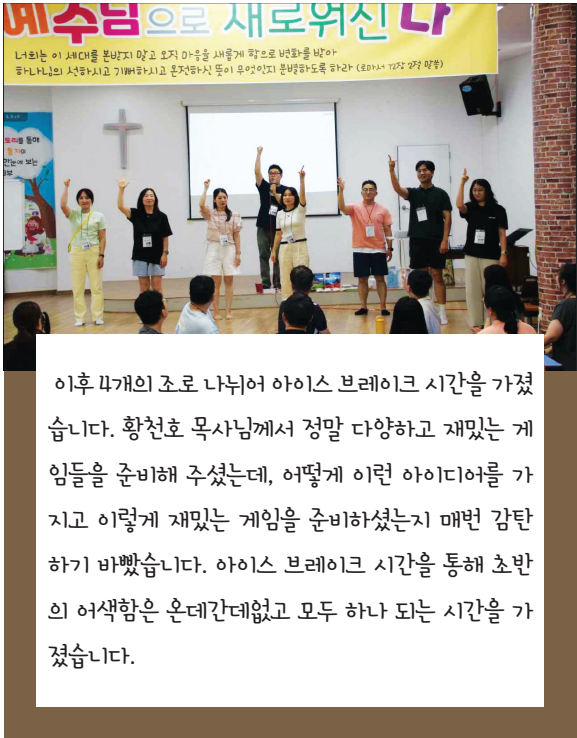
매달 청장년부 정기 예배를 비롯해, 이번 청장년부 수련회 찬양팀을 맡아주신 김규명 집사님, 박문호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 오영은 집사님, 광경언 집사님, 이다섯분 덕분에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합류하신 광경언 집사님의 드림 덕분에 더욱 신나는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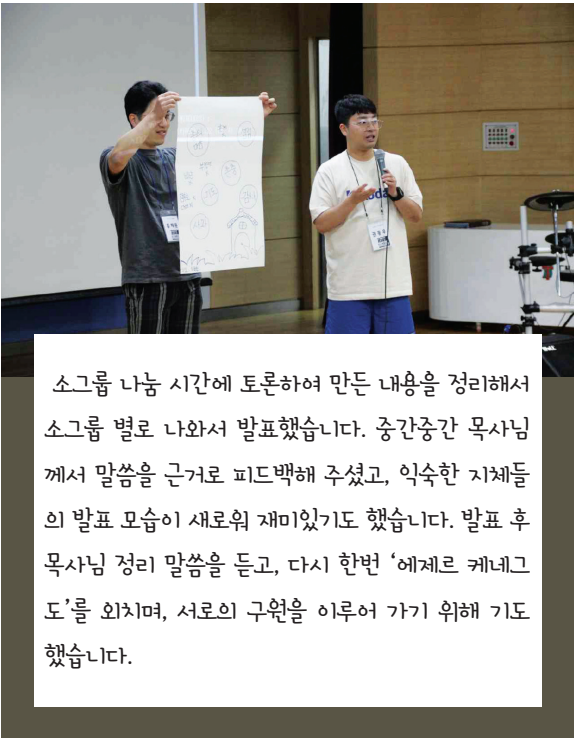
4개의 조로 나뉜 청장년부 수련회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 품 안의 우리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각 소그룹에서는 가정에서 우리들이 겪는 고민, 경험을 함께 나누었고,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각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기며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했고, 서로 더 친밀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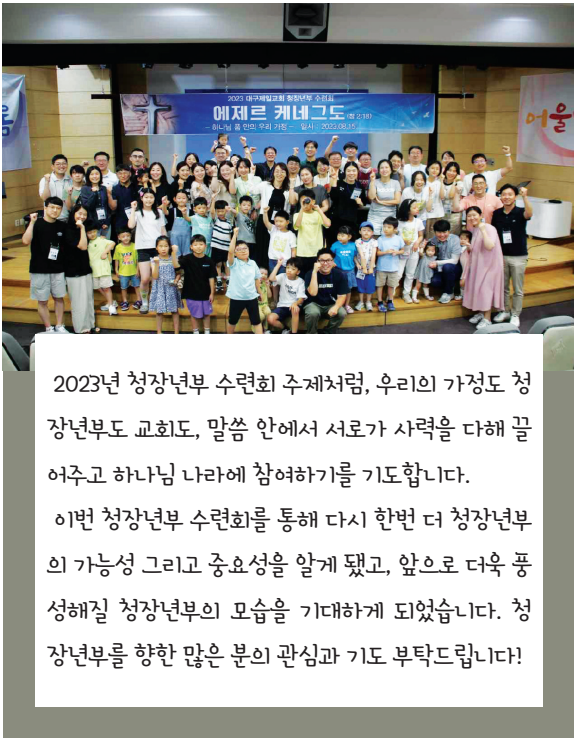
2023년 8월15일, 청장년부 수련회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에제르 케네그도”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데,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정 안에서 어떠한 목적,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배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참석한 청장년부 수련회인 만큼 정말 유익하고, 고민할 것들이 많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4개의 조로 나누어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천호 목사님께서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게임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준비하셨는지 매번 감탄하기 바빴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통해 초반의 어색함은 온데간데없고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그룹 나눔 시간에 토론하여 만든 내용을 정리해서 소그룹 별로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중간중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근거로 피드백해 주셨고, 익숙한 지체들의 발표 모습이 새로워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발표 후 목사님 정리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에제르 케네그도’를 회치며,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2023년 청장년부 수련회 주제처럼, 우리의 가정도 청장년부도 교회도, 말씀 안에서 서로가 사역을 다해 끌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청장년부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청장년부의 가능성 그리고 중요성을 알게 됐고,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청장년부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년부를 향한 많은 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7 여전도회, 근대화 골목 투어, 그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성희B 집사
(7여전도회 서기)

화창한 봄날에 잠시 일상을 벗어나 지난 4월 10일 전도회원들 간의 따뜻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10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10명의 회원이 모여 우리 교회의 선교 역사와 근대화 골목투어를 통해 회원들 간의 교제를 나누었고 회원 중 박병애 집사의 가이드로 근대 골목 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근대 역사와 이곳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골목 투어를 통해 알게 되었고 우리 교회인 대구제일교회는 1893년에 설립된 대구 최초의 교회로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30호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청라언덕은 20C 초 기독교 선교사들이 거주하면서 담쟁이를 많이 심은 데서 유래되었으며 달성 토성이 대구의 중심이었을 때 동쪽에 있다고 하여 동산으로 불린다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인 이곳은 챔니스주택, 스위트주택, 블레어주택 등 옛 선교사들이 생활하였던 주택과 90 계단, 대구 31 만세 운동길, 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인 동무생각 노래비,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묘지인 은혜 정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은혜정원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슴 뭉클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 나라에서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잠든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이곳에서 실제로 그들의 가족들이 묵념하고 있는 모습과 얘기 나누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이 묻힌 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한 분 한 분 만나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얘기도 나누었으나 각자 속으로만 감사기도를 전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1 만세 운동 길의 90 계단을 걸으며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하게 자신을 희생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늘 걸었던 길이지만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역사의 순간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좀 숙연해졌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13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기독교 역사관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로 오랫동안 지켜온 구 예배당 건물이 역사관으로 변해 중요한 선교 역사와 고 이상근 목사님의 기록물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잘 설명해주신 임병규 장로님의 섬김과 열정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와 아담스 선교사의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고 이상근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보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목사님에 대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목사님의 말씀과 강의가 생각났습니다. 가늘고 약간 허스키하셨던 목소리로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관 탐방을 마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추어탕을 먹으며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일상의 얘기들로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어찌면 날씨도 우리들의 나들이를 기뻐하고 반겨주듯 너무나 화창하고 맑았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스트힐로 와 차를 마시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여전도회가 더 활발하고 교회와 회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구성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불렷동상



P.S. [한 줄 소감문]

별다른 생각 없이 항상 다니던 길을 막상 해설을 들으며 지나 보니 새삼스럽기도 하고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장로님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니 막연히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건 전도 활동들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미애 회장)

뿌리의 흔적을 찾아 태평양을 건너온 가족을 만났다.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의 후손들로 묘비 앞에서 사진도 찍고 통역사들과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갑자기 감사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흘렀다. 그들에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뜨겁게 안아드리고 싶었다. 언어가 짧아 말로는 전할 수 없어 나의 뜨거운 가슴으로 꼭 안아드렸다. 가녀린 몸이지만 그분도 낯선 나를 꼭 안아주셨다. 감격스러웠고 그때 그 순간은 아직도 따뜻함으로 남아있다. (김금순 회원)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예츠가 대구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한국의 남쪽 예루살렘이었던 대구!!

선교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을 걸으며 조상들의 믿음과 헌신, 희생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부심과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박병애 회원)



2023. 06. 15.
제30회 여전도회 수련회



2023. 06. 25. 여전도회
제49회 6·25 금식기도회



2023. 06. 18. 청장년부 힐링음악회



2023. 06. 18.
국내선교부 헌신예배



2023. 06. 18. 국내선교부
담장안에서 온 희망편지



2023. 07. 28. 고등부 주관 금요기도회



2023. 08. 20. 군학원선교부 성명여중 학원상담 선교파송 예배



2023. 09. 03. 장학금 전달식





2023. 06. 18 임승규 첫출석(부-임병민 성도, 모-윤기쁨 성도)



2023. 06. 24 이다니엘 첫출석(부-이승호B 집사, 모-임미리 집사)



2023. 07. 02 김로건 첫출석(부-김용환 성도, 모-한규정 성도)



2023. 07. 30 신윤아 첫출석(부-신인철 집사, 모-백은정 집사)



2023. 08. 05 서하루 첫출석(부-서성준 목사, 모-강영주 사모)



2023. 08. 13 진이서 첫출석(부-진원혁 집사, 모-송지나 집사)





2023. 07. 16. C국 사역
선교보고회(장요셉, 김사랑 선교사)



2023. 08. 27. 말레이시아 사역
선교보고회(이석진, 박은주 선교사)



2023. 08. 06. 대만 사역 선교보고회 및 청년팀 방문(손명락, 이원향 선교사)



2023. 09. 09. 부활동산 벌초



2023. 09. 10. 청년·청장년부 한마음 운동회 : 청바지



제1회 청년의날

청년부 & 청장년부

한마음 운동회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일자: 2023. 9. 10(주일)
시간: 오후 1시 30분 ~ 6시
장소: 신명고등학교 강당



교 / 회 / 소 / 식

1 영유아 부모를 위한 핑크존 운영

영유아 동반 부모의 교회 주차장 출입 및 교회 식당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핑크존을 운영합니다. 이 핑크존에는 일반 성도들이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교회 홍보 팸플릿 발행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외부 탐방객을 위한 홍보 팸플릿이 10여 년 만에 4개 국어로 새롭게 발행되어 행정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팸플릿은 전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사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수고하신 분들

한글판	원 고	홍보출판부
	감 수	권오현 은퇴장로
영문판	번 역	임성은 성도
	감 수	최무진 장로, 임성현 성도
일본어판	번 역	손용기 집사
	감 수	권애진 집사(새문안교회)
중국어판	번 역	손명락 선교사
	감 수	송은화 권사
사 진		우제오 집사, 박효윤 집사
전체 디자인 및 인쇄		안지현 집사(디자인 아조)

불행동상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4)



권오현 은퇴장로

[머리글]

대구 경북지역에 하나님 복음이 1893년 4월에 전파된 이래 이 지역의 모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우리 교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인근지역 사방으로 뻗어나간 신앙의 불길은 1903년 우매교회 분립을 시작으로 1916년 감삼교회 분립까지 교회 창립 20년 만에 무려 10곳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에도 교회 분립은 우리 교회의 전도 정책으로서 계속되었으며 1986년 서대구교회를 마지막으로 25곳 교회의 분립·개척이 일단락되었다. 또한 신앙 노선의 차이로 인하여 3곳의 교회가 분립되기도 하였다.

‘물댄동산 100호’ 특별 지면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 28곳의 설립이유와 과정을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하여 간략하게 서술한다. 이 글이 대구제일교회의 위상과 책임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 등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구제일교회 130년사편찬위원회

권오현

대구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교회가 부흥됨에 따라 교회 분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교회의 분립이 시작된 주요 원인은 원거리에서 살고 있는 교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각 지역에 교회를 분산 설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구 인근 외곽지에 살고 있던 초대 교인들은 도시락을 준비하여 교회까지 수 십리 길을 걸어 주일예배에 참석하였다. 이처럼 불편한 교인들을 위해 인근 각 지역에 교회를 분산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늘어난 초대 교인 1,00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좁고 열악한 시설의 예배당이였다. 다행히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1908년 이후에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분립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우리 교회가 주체가 되어 분립시킨 교회를 설립순서대로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20) 파동제일교회



파동제일교회(巴洞第一教會)는 1975년에 우리 교회에서 스무 번째로 분립한 교회로서 대구시 파동에 소재하고 있다. 제59회 총회의 300 교회 개척운동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개척당시 강대권 전도사를 파송하였고 자립하기 위한 기간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교회분립과정을 1366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75년 4월 28일 하오 8시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회집 하다

개척교회 대지(동구 파동 135-6) 118평을 212만 원에 구입하고..... 개척교회 명칭은 파동제일교회로 하고 5월 4일 주일 오후 3시에 개회예배를 보기로 하다 회장 이상근, 서기 여진구

21) 서산교회 (현 성서산성교회)



서산교회(西山教會)는 우리 교회에서 스물 한 번째로 분립한 교회로서 1979년에 대구시 용산동에 세워졌다. 설립 당시에는 셋집 이층에서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그 후 대지를 구입하고 예배당을 지었다. 설립 초기부터 김상두 목사가 열성적으로 개척목회를 담당하였으며 지역교회로 자리 잡고 있다. 교회분립에 대해 1443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79년 10월 28일 하오 8시 10분 당회실에서 임시당회가 회장의 기도로 개회되다.

11월 둘째 주일 하오 2시에 개척교회 개당예배 보기로 하다

회장 이상근, 서기 양봉수

22) 성민교회(현 심터교회)¹⁾



성민교회(聖民教會)는 우리 교회에서 스물 두 번째로 분립한 교회로서 1980년에 대구시 범어동에 세워졌다. 설립 당시에는 기존 가옥을 구입한 후 개조하여 교회로 사용하였으며, 추만호 목사의 헌신적인 개척목회로 인하여 많은 성도가 모이는 기초가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였다. 교회분립에 대해 1464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 2003년 성민교회와 시지제일교회가 합병하여 수성구 매호동에 심터교회 설립(물단동 산 편집부)

1980년 12월 21일 하오 8시 20분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개회되다.

추만호 목사가 개척하는 교회장소는 전도부에서 세밀히 연구검토한 후 개척하기로 하다.

성민교회 교회대지구입에 따른 각서를 받기로 하다.

회장 이상근, 서기 양봉수

23) 제일서교회(현 성당제일교회)



제일서교회(第一西教會)는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교회로 1982년에 대구시 내당동 임대주택에서 설립되었으며, 우리 교회에서 스물세 번째로 분립하였다. 분립된 교회의 담임목사로 안성금 목사가 초빙되어 개척전도를 시작하였으며, 분립 다음 해인 1983년에 성당동에 교회를 신축하였다. 교회 설립을 위한 모든 경비는 서진관·강정숙 집사부부가 개척교회를 위하여 헌납한 주택매각대금으로 충당하였다. 교회분립에 관하여 제1494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82년 10월 3일 하오 1시 30분 당회실에서 개회하다

90주년 기념 개척교회 담임목사에 안성금 목사를 12:3으로 가결하다.

90주년 기념 개척교회 명칭을 제일서교회로 결정한다.

회장 이상근, 서기 이화석

또한 1983년 6월 5일 주보에는 다음과 같이 개척교회의 기공식예배를 알리는 교회소식이 실렸다.

본 교회 90주년 기념교회인 제일서교회의 기공식예배가 6월 6일 오전 10시에 현장(성당 주차장에서 구마고속도로 나가는 길 도중에서 북편으로 들어감)에서 거행됩니다.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버스가 떠나니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24) 제일논공교회 (현 달성제일교회)



제일논공교회(第一論工教會)는 우리 교회에서 스물네 번째로 분립하였으며 1983년에 달성군 논공읍에 설립되었다. 이 교회는 고이정용 집사의 유가족이 고인을 기념하기 위해 바친 개척교회헌금을 바탕으로 건축되었으며, 분립된 교회의 담임교역자로 임상진 전도사가 파송되어 개척전도를 시작하였다. 교회분립에 관하여 제1504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83년 3월 27일 하오 1시 30분 정기당회를 개최하다.

본 교회 이정용 집사 기념개척교회를 위한 3천만 원은 전도부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에게 맡겨 연구해서 당회에 보고해서 결정하기로 하다.

제일논공교회 담임교역자로 임상진 전도사를 파송하기로 하다. 회장 이상근, 서기 이화석

또한 1984년 5월 6일 주보에는 다음과 같이 헌당예배를 알리는 교회소식이 실렸다.

오늘 오후 3시에 본 교회에서 분립하는 제일논공교회의 헌당 및 입당예배를 거행합니다.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25) 제일서대구교회 (현 창성교회)



제일서대구교회(第一西大邱敎會)는 1986년 우리 교회에서 스물다섯 번째로 분립한 교회이며, 신흥주거지인 대구 서부지역에 설립한 개척교회이다. 이 교회는 개척교회 설립을 위하여 헌금한 교인에 뜻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용원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개척초기에는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지원을 받았다. 교회 분립에 관하여 제1560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86년 6월 23일 19시 30분 당회실에서 정기당회를 개최하다.

교회설립 건: 한 교인(서진관 집사)이 헌금한 일금. 3천만 원은 서부지역에 개척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모든 것을 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회장 이상근, 서기 김명엽

또한 1987년 6월 21일 주보에는 다음과 같이 창립예배를 알리는 교회소식이 실렸다.

본 교회에서 설립한 제일서대구교회의 창립 1주년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거행합니다. 교회에서 버스가 오후 2시 30분에 떠나겠사오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7호 광장에서 50 사단 가는 길목, 내당중앙교회 옆)

조국 광복이 된 이후 대구제일교회에서는 지교회 설립에 더욱 주력하여 교회창립 50주년 희년기념교회인 북문교회(1948년), 장천교회(1954년), 그리고 교회창립 60주년 기념교회인 상동교회(1957년), 두산교회(1973년), 하양제일교회(1974년), 파동제일교회(1975년), 서산교회(1979년), 성민교회(1981년) 등을 설립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교회창립 90주년 기념교회로 제일서교회(1982년)를 설립하였으며, 제일논공교회(1983년), 제일서대구교회(1986년)를 설립하였는데 특히 1982년 이후 분립한 교회는 모두 교인들의 특별목적헌금으로 설립된 개척교회이다.

● 강동교회²⁾

강동교회(江東敎會)에 관하여 제863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55년 1월 16일 하오 1시 반 임시당회로 예배당 상층에서 개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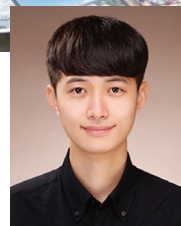
신설 강동교회를 본 교회 여전도회에 이임케 하고 본 교회에서 월 3천 원씩 보조기로 하여 제직회에 제의하기로 하다. 회장 오태환, 서기 강신철

출판동상

2) 안타깝게도 현재 강동교회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물덴동산 편집부)



청년부 키르기즈스탄 단기선교 A beautiful step!



박상은 청년

지난 7월 23~31일 본 교회가 돕는 칸트 제일 교회의 복음전파를 위해 청년부 단기선교팀이 키르기즈스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서성준 목사가 지도 교역자로 동행하셨고 이재환 부장 집사님과 배정은 집사님 그리고 청년 18명이 함께 단기선교 팀으로 결성되었으며 현지에선 김보현, 박소연 선교사님 가정이 8박 9일 일정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는 칸트 제일교회의 사역과 복음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페인트 작업과 더불어 칸트 제일 교회 주변 이웃 초청잔치 및 성경학교 그리고 한국 문화체험과 음식 나눔까지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여러 방법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키르기즈스탄 사역 활동

1) 칸트제일교회 봉사 사역

도착한 후 세 번째 날인 7월 25일 화요일 칸트 제일교회 봉사사역 및 주변 이웃 돌아보기를 진행하였다. 박소연 선교사님과 부장 집사님의 인솔 아래 팀원 2명은 주변 이웃을 방문하여 전도 집회 초청에 힘썼다. 남은 팀원들은 페인트 작업과 더불어 칸트교회에 쓰일 비품 구매와 책상을 조립하였다. 도착했을 당시 건축 담당자분들이 건물 천장을 마감 중이었다. 교회 전체를 한 바퀴 두르고 있는 가스관 페인트칠을 진행하였다. 키르기즈스탄은 가스관 색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면 칸트시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페인트칠 마감 통보 일이 당일 오후까지였고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칸트제일교회의 역사의 일부분을 단기선교팀이 담당했다는 기쁨이 피로를 씻겨주었다.



2) 비쉬켈 청소년 초청 성경학교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비쉬켈 지역 청소년들과 칸트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초청하여 7월 26일 칸트 제일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였다. 현지인들과 많은 교감을 나누었던 첫날이었다. 성경 퀴즈대회를 진행한 후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성경 퀴즈대회는 특히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설교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출국 3주 전 기출문제를 주셨다. 음식 사역으로는 김밥을 그리고 현지인들이 받으실 선물을 우리 팀이 준비하였다. 이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오후에 칸트 지역에 정전이 있었다. 선물에 부채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버티기엔 현지인도 힘들었다. 이날 예상 시간보다 조금 일찍 사역을 마쳤다.



3) 칸트제일교회 전도 집회

마지막 날인 7월 30일 칸트제일교회 전도집회를 진행하였다. 기존 성도님들과 더불어 초청하였던 이웃까지 현지인만 50명 가까이 참석하였

다. 칸트제일교회를 도와주고 계시는 이고르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진행하였다. 언어가 다른 우리가 같은 찬양을 각자의 언어로 함께 부를 때, 아멘은 함께 동일하게 외쳤을 때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꼈다. 또한 준비했던 복음 공연과 더불어 한국 문화체험 및 성경학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복음 공연은 현지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마치 연예인 공연을 보듯이 우리를 바라봐 주셨다. 사역 마지막 날이기에 현지인들과 사진도 찍으며 또다시 만날 날을 기대했다.



2. 키르기스스탄 이모저모

1) 건조한 날씨

현지의 날씨는 최고기온 39도의 고온 날씨가 지속되었다. 한국의 습한 기온과는 달리 건조했기에 그늘에선 선선했다. 적응이 어려웠던 부분은 날씨만은 아니었다. 키르기스스탄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호텔이 있었던 비쉬켈(수도)은 해발 800미터, 탐방했었던 이스쿨 지역은 해발 3500미터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한국보다 피로가 빨리 누적되었다. 다행히 이번 기간

동안 고산병이 팀원 중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리라.

2) 음식

현지에 도착한 후 숙소에서 도착했을 당시 저녁 10시였다.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누적되어 있던 피로를 풀어주시기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 이날 처음으로 경험했던 현지 과일 중 “디냐”라는 과일이 있었다. 달고 색깔이 하얀 것이 멜론의 맛과 비슷했다. 거의 매일 호텔 조식에 포함되어 있었다. 선교사님께서 많이 먹으면 탈 날까 우려하시면서 적당한 양만 먹을 것을 권고하셨다.

또한 양고기를 현지에서 많이 먹었다. 한국에서 생각했던 양과는 달리 키르기스스탄 양은 갈색의 소처럼 생겼다. 두 번째 날 첫 음식으로 “샤슬릭”이라고 불리는 양꼬치를 경험하였다. 소고기보다 부드러운 식감에 풍부한 단백질이 입을 덮었다. 샤슬릭은 4 덩이를 꼬치에 끼워 1인분에



6000원가량 판매한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포장마차 양꼬치와는 전혀 다른 맛의 샤슬릭이 우리를 사로잡았고 우리 팀원들은 3일 연속으로 샤슬릭을 먹었다. 현지에 방문하게 되면 꼭 추천하는 메뉴이다.

3) 운전

한국은 부산 지역이 운전하기 힘든 곳으로 유

명하다. 이는 초보자가 운전하기 힘든 도로와 더불어 운전자들도 운전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스탄은 현지 도로는 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 일반 도로는 왕복 2차선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부산보다 운전하기 10배는 힘든 것 같다. 이들은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살이 되면 남성은 말 대신 차를 한 대씩 갖는다. 말을 타는 습관이 운전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운전자의 성격은 더할 나위 없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로 도로는 가득 차있다. 9일의 일정 중 교통사고를 2번이나 목격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꼭 현지 운전자를 동행하는 것이 좋겠다.

3. 비하인드 스토리

1) 선교팀 숙소

이번 선교 팀 숙소는 선교사님 집 앞의 호텔로 결정되었다. 숙소를 알아보던 중 선교사님께서 6월에 집 앞에 호텔이 공사 중인 것을 목격하셨다고 한다. 곧바로 방문하여 언제 오픈하는지 여쭙보셨다. 오픈은 8월 이후 예정이셨다고 한다. 하지만 선교사님과 논의 끝에 호텔을 가오픈으로 열어주시겠다고 하셨다. 즉 우리는 호텔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자 우리 팀만 호텔 전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우리 팀이 모임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다. 보안의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었다. 호텔 직원들은 우리 팀을 통해 호텔 공사를 재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숙박 시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덕분에 좋은 분위기 속에 현지에 체류할 수 있었다.

2)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

2-1) 팀원 실종 Ver.

비쉬켅 탐방 도중 플리마켓을 돌아보는 일정이 있었다. 플리마켓을 자유롭게 돌아다닌 후 함께 모여서 중앙 광장으로 탐방을 가는 일정이었다. 광장으로 가기 전 모든 인원이 모였고 광장으로 이동 중에 있었다. 하지만 이후 광장에 도착했을 때 팀원 한 명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광장 주변을 살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지체에게 연락이 닿질 않았다. 다시 플리마켓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우리는 그곳에서 팀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플리마켓에 그림 그려주는 체험을 하고 있었다. 체험하면서 너무 밝게 웃으며 좋아하는 그 지체의 모습에 다시 찾았다는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했다.

2-2) 휴대전화 분실 Ver.

이스쿨 탐방을 위해 비쉬켅에서 4시간 정도 이동하였다. 이동하면서 식당에 들러 점심을 해결했으며 이스쿨 숙소에 도착하였다. 숙소에 도착한 뒤 한 팀원의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다. (이 팀원의 휴대폰 기기는 단기선교 오기 직전 구매하였던 신상 휴대폰이었다) 소식을 접한 후 지나왔던 식당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곳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잃어버렸다고 체념하며 하루를 끝마친 후 밤늦게 환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다 휴대전화를 찾았다! 휴대전화는 커튼 끝 쪽 창틀에서 발견되었다. 주변의 많은 팀원들이 달려와 축하를 해 주었다.



<늦은 밤 기쁨의 순간>

팀원들은 다행이라는 인사보다 왜 기쁨과 축하를 해주었을까? 두 가지 사례는 기존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이 잠시 떠나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찾았던 그 순간 즐거움과 기쁨의 열기로 가득했다. 아혼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나아갔던 목자의 마음이 팀원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새로운 것을 얻는 것만이 기쁜 것이 아니었음을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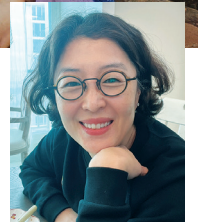
4. 감사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셨기에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선교사님 가정과 집사님들, 목사님을 비롯한 팀원들 한 사람들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아름다운 발자취가 되길 바라며 모든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칸트제일교회를 통해 뻗어 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 **불렙동상**

/소통의 장-선교보고/



스리랑카 의료선교 보고



김민정B 집사

여러 가지 축하와 전반기 순모임 종강으로 '아 그순'이 모여 식사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7월 말 스리랑카 의료선교를 하러 간다는 말을 들었다. 기독교 의료인은 누구나 누가를 동경하며 '나도 의료선교를 하리라'는 마음 한 번쯤 가져봤으리라. 하지만 개업의가 일주일 뻘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나 역시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주님 올해는 제가 꼭 가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막상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아버지 곁은 멀찍이서 맴돌며 어물쩍 넘어갔었다.

스리랑카 의료선교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마치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지나가듯 읊조리는 나의 기도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 싶었다. 걱정하는 가족들과 항공권이 구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역을 준비하는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진짜 실감이 났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싶었다.

막연히 의료선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눈도 뜨고... 아니면 멀리 있는 그곳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 스리랑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다.

7월 24일 ~ 7월 31일 스리랑카

숨 막히는 더위, 열악한 진료환경 속에서 마음만 있었지. 내가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었다. 내가 상상하던 선교와는 사뭇 달랐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얼마큼의 도움이 될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전해질까? 그래서 그 땅이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 불현듯 베이드 선교사님이 생각났다.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딛고 이 땅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생각났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성전(교회)이었던 초가집이 생각났다.

‘그래, 스리랑카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시작된 아버지의 역동적인 건설역사이지!! 여기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쁜지.

주위를 둘러보니 같이 일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보다 어린 분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많았지만, 어찌나 열정적이고 지치지 않으시던지. 저녁때가 되면 녹초가 되었지만, 아침에는 또 새순처럼 파릇파릇하셨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재밌는 입담으로 한바탕 웃고 나면 또 힘이 났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 속에, 우리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우리 의료 선교부는 의료진료, 미용, 어린이 사역 이렇게 나뉘어 있었다. 의료선교를 하다 간간이 같은 룸메이트였던 미용팀에도 가보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머리를 만지기 위해 더운 날씨에 잘린 머리카락들이 몸과 옷에 달라붙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주히 움직이는 손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아이들을 위해 팝콘 기계도 열심히 일을 하고, 팝콘의 뜨거운 열기에 사랑을 담아 건네주시는



권사님, 장로님의 그 환한 얼굴들이 너무 빛났다. 모두가 우리가 가진 작은 사랑 한 톨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 땀방울을 휘날렸다.

마지막 날 아신카 목사님과 스리랑카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힘을 모아 세운 보디아칸다 교회의 헌납 예배에 참석했다. 그 땅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곡차곡 이루어짐을 보았다. 지금은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기쁨으로 거둘 것임이 분명하다. 기대감으로 해 나갈 수 있으리라.

그 외에도 보디아칸다 교회를 위한 앰프와 냉장고와 그곳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물품도 전달되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은 대구 땅의 제일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에서도 우리 사이에,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심을 알았다.

이제는 또 한 번 나를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곳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를 위해 작고 하찮은 발걸음을 다시 한 발짝 디더본다. | **출판동상**



/소통의 장-관리부보고/



이재정 장로(관리부장)

본당 냉난방기 교체공사 보고

| 배경

하나님의 은혜로 본당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기도로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 본당 건물 신축 시 설치된 냉난방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로 2017년 정책당회 때부터 매년 꾸준히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결국 2021년 10월 23일 정책당회에서 본당 냉난방 열원설비를 10억 내외 예산으로 교체하기로 결의하였고 12월 26일 제직회와 2022년 1월 9일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 계획

저는 2022년 2월 13일 신임 관리부장으로 서 관리부 첫 실행위원회(참석 위원: 부부장 임신영집사, 서영우집사, 이재환집사, 임병철집사, 임현욱집사, 장지중집사, 안수집사회장 김철우집사)를 개최하여,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인 시스템 검토로 투명한 사업 추진과 객관적인 공사비 산출이 가능한 ‘설계 후 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월 27일 당회에서도 그렇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설계 및 입찰

3월 31일 대구 경북에서 다양한 설계 경험

과 실적이 가장 많고 즉각적인 업무협약이 가능한 (주)신일이앤씨와 1800만 원(VAT 포함)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고 4월 4일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5월 22일 교육관 4층 정류아트홀에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6월 26일 당회에서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본당 5층에 기존 공조기 철거 후 한랭지형 전기히트펌프 직팽식 공조기를 설치, 이를 위한 실외기 10대를 쿨링타워 철거한 자리에 설치, 지하 1층 및 로비에는 기존 공조기 철거 후 환기용 송풍기를 설치, 추가적으로 각 실마다 개별 냉난방기(EHP)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총 22대). 22대의 내역은 지하 1층에 로비(2), 아담스홀(4), 찬양대연습실(3), 지상 2층에 로비(2), 새 가족부실(1), 재정부실(1), 스튜디오(1), 지상 3층에 당회실(2), 해외선교부(1), 국내선교부(1), 지상 4층에 동시통역실(1), 홍보부(1), 지상 5층에 문화교실 기타반(1), 군학원선교부(1)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계용역을 8월 말에 마쳤으며, 9월 5일 공사 입찰공고(기계공사와 전기공사로 분리 발주, 최저가 입찰), 9월 14일 현장설명회(기계공사 3개 업체, 전기공사 3개 업체 참여), 9월 24일 개찰 결과, 기계공사 대구공조산업(주) 10억 5천만 원, 전기공사 (주)대성기전 2억 460만 원 등 기타 포함

총공사비 12억 9460만 원으로 입찰가가 높아 9월 25일 당회에서 '유찰'로 의결되었습니다.

| 재입찰 및 공사

11월 7일 전국을 대상으로 재입찰 공고, 11월 12일 현장설명회(기계공사 9개 업체, 전기공사 3개 업체 참여), 11월 25일 입찰서 제출(기계공사 6개 업체, 전기공사 2개 업체), 11월 26일 행정위원회 입찰 개봉 결과, 기계공사 한국공조(주) 9억 2550만 원, 전기공사 (주)한빛전기 1억 9580만 원 등 기타 포함 총공사비 11억 6131만 원으로 11월 27일 당회에서 '낙찰'로 의결되었습니다. 12월 초에 한국공조(주) 및 (주)한빛전기와 계약을 맺었고, 제작 기간이 2~4개월 소요되는 공조기 및 변압기 제작에 먼저 착수하였습니다. 3월 3일 공종별 현장소장들과 전체 공사 추진일정 및 가설공사 배치계획을 협의하였으며 3월 13일(월)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6월 12일(월) 준공되기 전까지

불편을 감내하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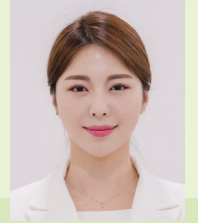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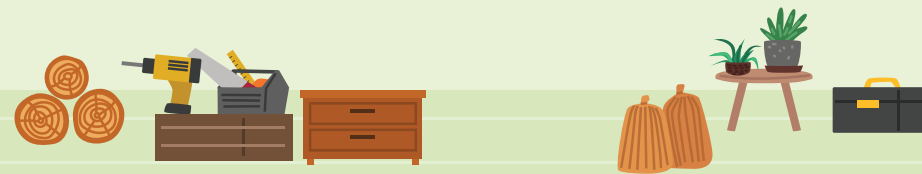
| 총결산

실제 소요된 총사업비는 설계 1800만, 기계공사 9억 2550만, 전기공사 1억 9580만, 감리 330만, 기술지도 136만, 기타 585만 등 11억 4981만 원으로서 낙찰 당시 예상 사업비보다 1150만 원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주)한빛전기에서 600만 원 상당의 노후 전기장비들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수고해 주신 이상문집사님과 많은 회의에 참석 수고해 주신 관리부 모든 실행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경북대학교 시설 1 팀장으로 계시는 임신영집사님이 관리부 부부장으로서 이번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해 주셨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불렙동상



문화교실부 목공반 소감문



이진아 성도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교실 목공반의 막내 이진아입니다. 목공반에 대한 글을 적게 되어 목공반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수업에 참여한 소감, 저희 목공반에 대한 소개를 적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라언덕이 한창 푸르른 작년 6월에 대구제일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드렸던 주일예배는 교회가 처음이었던 저와 서울 출신인 남편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신기하게도 첫걸음 한 그날, 다음 주에 '교회로 온나' 행사를 한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마치 대구제일교회가 저희 부부를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 바로 등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교회에 오고 싶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로 온나' 행사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행사 때에는 감사하게도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해주셨는데 목공반에서는 직접 십자가

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십자가 만들기는 인기가 너무 많아 줄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만들고 부스를 나서려고 할 때 제 눈에 문화 교실 신청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부터 남편과 저는 목공을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지라 바로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도 목요일 저녁이어서 일요일 예배 후에 하는 수채화 캘리그래피 수업과 겹치지 않아 함께 배울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목공반 수업은 어느덧 1년이 넘은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며 목공반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목공반 수업은 이경훈 선생님이 전체 작품과제를 주시면 각자 본인의 작품을 만들며 함께 진행됩니다. 수업에서 만들 수 있는 작품으로는 사각 스톨, 원형 스톨, 낮은 미니 테이블





블, 협탁, 테이블, 선인장 액세서리걸이, 휴지 케이스, 오디오 장, 서랍장, 북 스탠드, 책꽂이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강 초반에는 목재를 다루는 기본과 목공용 작업 기계, 장비사용이 익숙해질 때까지 작은 작품이나 쉬운 작품 위주로 작업하게 되고 이미 만들었던 작품 외에도 선생님과 수강 회원들이 다 같이 상의하여 새로운 작품도 만들게 됩니다. 작품을 만드는 주제는 늘 새롭고 의견의 반영도가 높은 편입니다. 작품을 하나둘씩 만들다 보면 기본적으로 전기드릴이나 사포, 타카, 끌, 망치, 톱 등은 다룰 수 있게 되어 여성분도 충분히 혼자 작업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수강하신 기존의 회원분들이 함께 도와주며 작업하는 분위기여서 어렵지 않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대구제일교회의 교인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어서 주변의 친구나 직장동료와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간 만들었던 목공 작품들을 하나씩 집에 배치하다 보니 어느새 집안의 작은 가구는 직접 만든 작품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목재 소가구와 작품들이 주는 느낌 때문인지 감사하게도 집에 방문하는 손님마다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 다들 놀라기도 하고 마침 집에 가구가 필요하다며 목공 수업에 관심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목공반 수업회원들은 지인들에게서부터 제작 의뢰받은 주문이 몇 개씩은 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문화 교실 수업을 신청할 길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목공반의 집사님들과 권사님, 또 함께 수업을 듣는 회원님과 같이 교제하며 일상을 나누는 즐거움이 되었고 교회 생활에서 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인지라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편하게 여쭙어볼 수 있었고 잘 이끌어주셔서 올해 봄에 세례를 받았고, 순모임도 신청하게 되어 좋은 순장님과 순원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교회에 오는 하루하루가 즐거운 나날입니다. 저처럼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 가족분이시거나 평소 무언가를 배워보고 싶으셨다면 관심이 있는 문화 교실에 꼭 등록하셔서 새로운 교제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 **불렷동산**



하나님의 뽀은 손! 그 손 잡으러 금요기도회로 ~



최성민 전도사

할렐루야~ 2023년 2월 첫째 주부터 대구제일교회 찬양인도자로 부임한 최성민 전도사입니다. 대구제일교회로의 첫발을 딛으며 물댄동산을 통하여 부임 인사 글을 올린 시간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나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운 사역지에서 설레는 마음과 새로운 발 딛음에 대한 부담감과 떨림을 안고 인사를 드렸고 지금은 '금요 찬양단'이라는 또 다른 사명감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금요 찬양단'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대구제일교회 지하 1층 아담스홀에서 이루어지는 심야 금요기도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입니다. 찬양 단장님을 중심으로 주축이 되시는 집사님들의 물심양면의 전폭적인 섬김과 이에 부응하여 열정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단입니다.

금요기도회는 삶의 어려움을, 괴로움들을 내어놓는 자리이며, 소망을 담아내는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많은 분이 은혜를 받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대구 제일교회를 많이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7개월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 의자가 많이 비었었는데 시간을

거듭할수록 기도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셔서 지금은 예배당 의자가 거의 차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금요 찬양단도 7개월 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열 몇 명 남짓의 찬양단원들이 하나둘씩 예배의 자리에 모이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류해 현재는 30명이 넘는 인원이 금요 찬양팀으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금요기도회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뜨거운 기도 소리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매주 금요 찬양을 인도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느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갈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시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현장의 뜨거운 기도 소리에 합하여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손을 뻗어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금요기도회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불렷동산**



A n o t h e r l a n g u a g e

어나더랭귀지 전도팀

(대구제일교회 청년부 전도팀)

뜨거웠던 울어름, 서성준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간에 전하셨던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저희의 마음도 덩달아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행2:4)”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행2:11)”

이 본문 설교를 들은 후에 평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던 동성로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북적거리고, 무더운 더위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최근 그곳에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포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는 생각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짜가 아닌 진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다른 언어] 곧, [ANOTHER LANGUAGE]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를 준비하였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던 장마철이었는데, 비도 내리지 않고 알맞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구성전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전도를 출발하기 전 다 함께 노방찬양을 부르며 시작했습니다.



직접 그려 제작한 전도 부채



찬양 후에 본당에서 지원해 주신 전도용 물티슈와 청년부에서 제작한 부채, 시원한 물들을 팀마다 손에 들고서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져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희는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청년부 일정에 맞추어 2차, 3차, 짝짝 전도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 그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청년부 전도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불렙동상**

ANOTHER LANGUAGE

[다른언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행2:4)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행2:11)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다른언어]입니다.

복음 전하러 갑시다 !

어나더랭귀지 전도팀 기도제목

1.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상속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2.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망설임 없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3. 전도 당일 날씨를 알맞게 인도해주시고, 전도팀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복음 전하러 갑시다!



외부 기고문_우리 결의 이단

2023년, 온·오프라인으로 여전히 진화하는 포교전략과 대응 방안3

BIG 3 이단,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I. 신천지



사진출처 : 목장드림뉴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은 과거 문제성 단체였던 장막성전 등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다. 90년대 초부터 산하 교육기관인 '무료성경신학원'을 앞세워 "성경의 모든 것을 3~6개월 만에 무료로 가르쳐 준다"라며 왜곡(歪曲)된 성경해석으로 많은 기성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거리나 인근 지하철 입구에서 상시로 홍보물을 나눠주거나 부착하며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이나 가정, 사회생활에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성경 지식에 갈급해 하는 교인들에게 접근, 기성교회를 비판하며 비유와 비사로 성경을 풀어 '선민적 우월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기성교회를 이탈하게 하며 잘못된 성경관을 갖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과천에 본부교회를 두고 지역별 12지파를 형성, 2023년 현재 20만 명이상의 교인들이 모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혈장 공여 등의 사회봉사로 다시금 회복되고 있다.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포교' 등으로 여



작성 _ 탁 지원 소장

성결대학교 신학과,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Th. M) 졸업
전 한국기독교잡지협회 회장
현 월간 현대종교 대표
전 서울신학대학교, 백석대학원, 한세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신대원 등
현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 코스타 강사

전히 불특정 다수를 미혹하고 있다.

1) 신천지 창교자 이만희



사진출처 : 뉴스앤조이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 주장하는 이만희는 1931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다(신천지교회 발간,『영혁』). 서울로 상경해 전도관 박태선 씨의 신앙촌에 머물다 당시 18세의 학생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났던 장막성전의 어린 종 유재열 씨의 집회에 참석한 후 유 씨를 추종하게 된다. 1967년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이탈. 1971년 유재열을 고소해 법정에 세우기도 했던 그는 1980년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 경기도 안양에 신천지 중앙교회를 설립했다.

2) 조직과 활동

『신천지발전사』에 따르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4장과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며 영계 보좌를 지상에 옮겨 놓은 형태로,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24장로를 중심으로 지역교회와 신학원이 7교육장, 12지파로 나뉘어 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4장과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며 영계 보좌를 지상에 옮겨 놓은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주장

이들의 성경 교육은 초급(25과), 중급(40과), 고급(22과)의 각 2개월씩 총 6개월 과정이다.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 66권을 모두 통

달하여 깨우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과정은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천지의 성경공부 방식은 정통 교회의 '성경해석'과는 전혀 다른 소위 '비유 풀이'로 진행되는데 자의적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면 비로소 신천지교회 교인이 되어 새 신자 교육을 받게 된다. 최근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강의 실력으로 인 맞은 것을 확인하겠다고 공지했다. 만 6년 전인 2017년 8월에도 이와 같은 해프닝이 있었다.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치른 시험을 통해 인 맞은 자를 평가하겠다고 했었다. 시간이 흘러 다소 뜬금없이 새로운 지령이 떨어진 셈이다. 단순한 시험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천지 신도들이 들쭉이는 것은 구원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원받은 신도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44,000명의 신도가 채워지면 신천지의 시대가 열리고 신천지 신도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해왔으나, 2015년 자체 추산 약 16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되면서, 인침을 받은 144,000명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교리를 변경했다. 그때부터 신천지 신도들은 인침을 받은 자, 곧 인 맞은 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을 쳐왔는데 이번에 또 교리가 변경된 것이다. 이단, 사이비 종교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4) 미혹 방법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 세밀하고 계획적이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 성도에게 접근한다. 포교 방법을 교육하는 책도 20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이다. 신천지는 수단과 방법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미혹한다. 신천지의 포교방법에는 기성교회 교인 포교/ 기도원, 교회, 집회 전도방법/ 신학교 및 대학생 전도방법/ 열차, 버스, 전철 내 전도방

법/ 노방전도/ 좌판 전도방법/ 일가, 친척, 친구 전도방법/ 직장 전도방법 등이 있다. 이처럼 신천지는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상세한 포교 지침서를 마련해 구성원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포교하고 있다. 그간 '성경 세미나' 등의 위장집회, 기성교회에 '추수꾼'(정통 교회에 위장 잠입한 신천지 성도를 뜻함)으로 잠입하는 방법, 기성교회 전체를 포섭하는 '산 옮기기'(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를 신천지로 옮김을 뜻함) 전도방법, '가나안 정복 7단계', 그리고 정통 교회로 가장하여 접근하는 '위장교회'까지 등장했으며, sns 등을 통해서 포교하기도 한다.

5) 피해



사진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튜브와 온라인을 통해 청년들을 포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심지어는 당근마켓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서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신천지가 대구스타디움에서 10만 명 대규모 수료식을 개최했고, 수료식 이후 신천지는 "10만 수료"를 내세우며 포교를 이어가고 있다.

① **가정파괴** - 신천지에 의한 피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가출해버리는 경우 등이다. 현재 이단들 피해자들의 숫자는 직, 간접적으로 200여만 명 정도이다.

② **교회분열** - 교회마다 신천지의 위장침투가 큰 문제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일정 기

간 교육을 받은 뒤 기성교회에 새 신자로 위장해 등록하고, 아울러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한다.

③ **학원 침투** - 신천지 측이 대학에 침투하는 방법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동아리로 가장하는 방법 등이다.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침은 사람들이 청년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대학가나 카페 등에서 청년들을 미혹하는 데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

④ **온라인 피해** - 유튜브나 SNS를 통한 청년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6) 대처 방법

① **교회 대처** -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이단에 관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날마다 이단의 미혹과 전략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나 교육(간단하게 주보 광고를 통해서라도) 등이 필요하다. 몇몇 교회의 경우 성도들을 통한 신천지 반대 시위, 내지는 여러 방법을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② **시민들의 자발적 대처 사례** -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라든지 청평지역의 신천지 박물관 건립 반대 등의 활동을 보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믿는 이들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③ **언론의 대처** - 현대종교, 기독교방송(cbs) 등의 언론들이 꾸준히 신천지 등의 이단에 대해 실상 보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④ **전문기관의 대처** - 이단에 빠진 분들을 회복·치유시키는 상담 프로그램, 후속 교육, 예방세미나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 이단 피해자는 이단 상담소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⑤ 최근 신천지의 한국교회를 향한 압박이 거세어지고 있으나 반대로 신천지 수가 14만 4

천 명이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교주가 사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후계 구도의 권력 다툼 문제와 코로나19까지 맞물리면서 내부 단속을 위한 외부와의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신천지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차분히 경계와 예방의 마음을 갖고 깨어 근신하며, '지피지기 백전불패'로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구제일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여전한 건투와 승리를 소망해 마지않는다.

II.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1)



사진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는 사망한 안상홍을 하나님,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와 하늘 어머니로 신격화하는 이단 단체이다. 안상홍 교주는 ‘안식교’의 영향을 받았고, 본부는 분당에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이단이나 10만 명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교회 등을 매입하고자 힘을 쏟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포교하고 있다(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이단 대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산하 섯별 선교원, 엘로힘 연수원, 오라 서포터즈, 메시아 오케스트라, 도서출판 ‘벨기세텍’이라는 곳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동아일보 등 여러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

다. 최근에도 여러 언론에 하나님의교회가 등장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 신도들은 하나님의교회가 유명해져서 그런 줄 아는 이들이 많다. 광고형 기사나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언론에 나온 하나님의교회 홍보 기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도들이 구입해 2차 홍보를 하기도 한다. 신문, 잡지 등 직분에 따라 사야 하는 분량이 있다. 명확하게 정해주지는 않아도 본인의 위치에 따라 은연중에 구입하는 수량이 정해진다. 언론 기사가 나오면, 어디 부분에 형광펜을 쳐야 하는지도 불러준다. 포교를 위한 하나님의교회 홍보 전단지도 신도들이 각자 구입하는 것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의교회 마크가 있는 수건, 컵, 보온병 등을 신도들이 교회에서 구입한다. 명절에 모이는 가족, 친척들을 포교하기 위해서이다. 포교 기간에 직분자들은 더 바빠진다. 목표량을 채워야 하기에 잠도 2~3시간밖에 자지 못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사진출처 : 현대종교

1) 안상홍

안상홍은 1918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1947년 안식교에 입교했고, 1962년 안상홍 외 23명이 안식교를 탈퇴, 2년 후인 1964년 부산에서 ‘하나님의교회 예수증인회’를 창설했다. 이후 교세 확장에 힘써 1965년부터 많은 교회를 설립했으나 67세에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2) 시작

안상홍 사후인 1985년 본부를 부산에서 서울

로 옮긴 추종자들은 단체명을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로 개칭했으며 봉천동으로 본부를 이전하기도 했다. 이후 1988년, 1999년, 2012년 등 계속되는 시한부 종말설의 불발과 이로 인한 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여 지금의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로 개칭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주장

①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 안상홍** -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이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침례를 행하고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새 이름’을 안상홍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타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나의 새 이름(계3:12)’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뜻한다.

② **하늘 어머니 장길자** - ‘하나님의교회’는 성령을 ‘안상홍’이라 하고 신부는 ‘장길자’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에 ‘어머니’가 ‘장길자’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본문은 ‘유대교’와 ‘초대교회’를 비교하는 비유다.

③ **안식일** - 안식일(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인용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주장하나 하나님의교회는 본문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을 ‘지키셨다’라고 변조했다. 또한 구약의 모든 규례들과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 골로새서 2장 14~17절을 보면 이 문제는 십자가에서 폐한 바 되었기에 더는 꾀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④ **십자가** - ‘하나님의교회’는 십자가를 우상 숭배로 정죄하고 있다. 그러나 상징과 우상, 기념과 숭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 십자가는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한 소중한 상징물이긴 하나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숭배하지는 않는다.

⑤ **성탄절** - ‘하나님의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고 초봄(4월)이라고 주장한다. 안상홍도 초봄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탄절을 초봄으로 잡는 것은 안상홍이 새 언약인 유월절을 회복하는 육체로 온 예수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 [출렁돌상](#)



사진출처 : 국민일보

- 하나님의 교회 2편은 다음 호에 계속

부제

1. 서론 :
-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1]
2. 본론 :
-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2]
3. **BIG 3 이단 :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4. BIG 3 이단 : 구원파와 결론

- 관련 성경 구절 :
요한1서 4:1~6, 마태복음 24:5, 36

이단을 이기는 기독교 교리[3]

구원론

하나님 은혜의 절대적 우선성



장규현 목사

지난 시간 기독교의 교리에 중심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부만을 강조하는 동시에, 새로운 구원자로서 교주가 등장하는 구조의 교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다루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상당히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이단에게 포교 당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교리 교육의 부재와 함께 이단들이 진행하는 세뇌 방식의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올해 계속해서 연재해 나가는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성도님들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구원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이단들이 포교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구원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거나, 이미 얻은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죄와 구원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구원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의 방향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법적인 조항으로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해석한 것이지요.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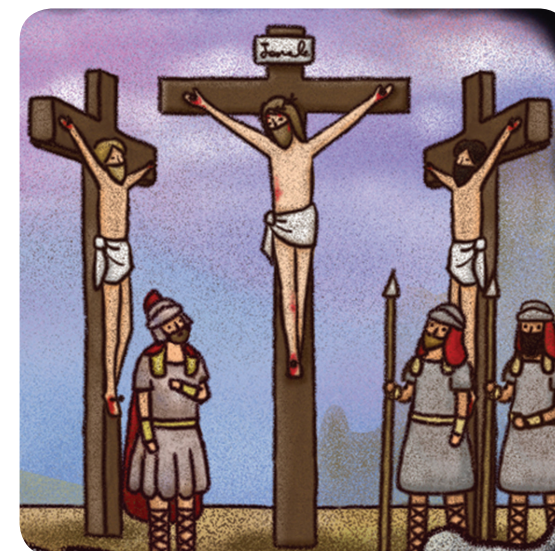


을 죄인이라고 규정했지만,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날이기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와 연관해서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구원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킴으로서 얻게 되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구원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도록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삶은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항으로서의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바리새인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려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이단의 유혹 : 인간의 노력

이단들은 “구원받을 자신 있어?”라고 질문해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묻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은 이 질문 앞에 당황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에, 그 질문에 답대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이단들은 집요하게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유혹합니다. 다양한 성경의 본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신천지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공부의 자리로 유



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는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며,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이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책임성을 말하며, 바리새인의 유혹이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책임성이 중요하지만, 이단은 자신들의 공동체로 유혹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길 :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조화는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큰 신학적인 주제이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은혜의 절대적 우선성**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단은 언제나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불안을 파고드는 것이지요. 불안한 마음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루려고 할 때,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구원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구원의 다른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들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윤리화된 구원 이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신앙의 삶이 의무적인 조항처럼 강요된다고 느끼신다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꺼이 따라가는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물덴동산**



알면 도움 되는 기독교 교파 이야기 [3]

한국 성결교에 대하여



서성준 목사

성결교 기원과 특징

성결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장로교와 달리 교회나 교파, 교단이라는 조직적인 구성으로 시작된 교단이 아니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성결교의 기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성결교의 뿌리는 감리교에 있다(물덴동산에서 감리교 다음으로 성결교를 소개한 이유도 이런 흐름에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 존 웨슬리에 의해 시작된 영국의 신앙 운동은 미국으로 확장되어 미국 제1의 개신교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감리교는 웨슬리의 제도만을 받아들이고 중심이었던 성결 운동을 등한시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 감리교가 세속화되었다고 비판하며 웨슬리 신학을 따라 더 본질적인 말씀의 뜻을 따라 성결 운동을 세우기 위한 새로운 연맹을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성결 운동의 영

“
들어가는 말

한국 개신교 역사에는 장. 감. 성이라는 말이 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줄여 이처럼 표현하여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개신교 역사에 큰 영향과 대표되는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장로교 교인,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타 교단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번 물덴동산에 기고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성결교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고 짧은 글이지만 성결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이 있으리라 기대해 보며 소개한다.

향을 받은 카우만 부부는 길보른과 함께 1901년 일본 도쿄에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성서학원을 개설하여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일본 곳곳에 복음전도관이 세워지고 이를 통괄하고 관리하는 기구로서 ‘동양선교회(Oriental Missionary Society)’를 세우게 된다. 여기서 동양선교회는 교단이나 교파의 개념보다는 오늘날 캠퍼스 선교단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에 세워진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에서 유학생 ‘김상준’과 ‘정빈’이 졸업하고 귀국하여, 1907년 서울 종로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성결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선 설명에서와 같이 성결교는 교회의 조직, 교단이나 교파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다. 하나의 운동, 즉 성결 운동 아래에 활발한 선

교와 전도 활동을 통하여 점점 교세가 확장됐다는 점에서 특징이라고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김상준, 정빈 두 사람의 열정적인 전도와 사역으로 최초의 성결교회라 할 수 있는 무교동 성결교회(현, 서울중앙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물론 교회가 조직되고 교단이 세워지는 때는 훨씬 이후에 일어나지만 말이다.



서울중앙성결교회

성결교의 교리적 특징은 '사중 복음'이라 불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있다. 중생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성결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신유의 복음으로 온전한 영과 육을, 재림의 복음으로 소망의 삶을 전하고 따르는 교회,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중 복음 교리에 대한 부분은 매우 간단하게 축약하여 설명했음을 밝힌다) 교리의 특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성결교는 철저하게 성도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매우 큰 관심과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 성결교의 역사와 활동

앞서 성결교의 기원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결교는 교파선교부가 아니라 초교파 선교단체인 동양선교회의 선교활동에 의해 시작되

었다. 선교 초기의 동양선교회는 교회의 설립 대신 '복음전도관'이라는 전도 단체를 통한 복음 전파에 주력하였으나 이것이 모체가 되어 1921년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라는 이름을 지닌 교파교회가 탄생하였다.



한국 성결교회 부흥에 기여했던 주요 인물(출처:데오스앤로고스)

동경 성서학원을 졸업한 김상준과 정빈을 비롯한 초대 감독으로 파송 받은 영국인 존 토마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1911년 무교동 전도관에서 성서학원이 시작되었다. 이후 1912년 경성 성서학원의 개교와 함께 동양선교회 본부가 동경에서 경성으로 옮겨지면서 조선은 동양선교회의 중심 공간이 되었다. 당시 개신교 역사 초기에는 장로교와 감리교 중심으로 교계예양(敎界禮讓)이라고 불리는 선교지역 분할정책을 세워 조선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양선교회(성결교회)는 이 정책에 따르지 않았다. 존 웨슬리가 "세계는 곧 나의 교구이다!"라고 말했듯이 지역 분할을 반대하고 전국을 교구로 삼아 복음전도관을 전국에 세워가기 시작했다. 동양선교회의 이와 같은 사역은 복음 전파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하고, 기존 교파가 선교한 구역에도 성결의 누룩이 뿌려지길 원했으며 다른 교파가 포기한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3.1운동 이후에는 전라도, 함경도와 만주, 일본에까지 성결의

복음을 전해서 전국적인 교단이 되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는 감리교보다 교세가 많았고, 충청도에서도 장로교 못지않은 상당한 교세를 갖게 된 것이다.

조선 땅에서 활발한 전도사역으로 교세가 확장되던 성결교는 이후 1936년에 교단 내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난다. 정남수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¹⁾를 설립하여 분열하게 된다(이후 하나님의 교회는 1948년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로 활동하게 된다). 이런 어려움 중에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1943년 교단이 강제로 해산을 당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성결교의 교인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증도 교회의 문준경 전도사가 있다.²⁾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조선 땅에 해방이 찾아왔고, 1945년 9월 재건총회와 1949년 4월 대한민국 국호를 따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교단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발발한 6.25 전쟁은 다수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또다시 공산당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였다. 전쟁 이후 성결교는 장로교의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의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갈등을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 또 다시 분열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과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현재 성결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과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과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으로 나뉘어져 있다.

1)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안상홍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와는 다름을 밝힌다.
2)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목포경찰서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찬송가 336장(환란과 핍박 중에)을 부르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외치며 일제의 탄압에 맞섰던 신앙의 선조이다.

성결교는 장로교나 감리교가 병원, 학교 등 대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며 복음을 전했던 방식과 달리 순수한 복음 전도를 통해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웠던 주요한 특징이 있다. 그렇기에 성결교 초기에는 국가의 흥망과 가족의 생사보다 오직 하늘만 믿고 복음이 온다고 하여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성경과 복음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복음의 원리와 정신을 따라 순수하게 성결 운동을 해나갔던 교단이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결교 내부적으로 말씀과 복음의 원리와 정신을 따라 자생적으로 교회, 교단이 세워졌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정신을 따라 계속해서 성결 운동을 이어가고자 힘쓰고 있다.

나가는 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은 들어보았던 성결교에 대하여 짧게 살펴보았다. 성결교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말씀과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힘쓰는 성결의 정체성을 지닌 교회, 교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결교의 특징을 보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갈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의 원리와 정신을 따라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불행동상

[참고자료]

1. 강돈구 외, 『한국종교교단 연구 VI』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 이진구, <한국 개신교 지형의 형성과 교파정체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중심으로> (2012), <<성교문화비평>> 22호 (대한기독교서회)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481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H.F.Lyte 작사 · W.H.Monk 작곡:〈통일찬송가, 1983〉 531



김위규 은퇴장로

481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통일 531)
 H. F. Lyte, 1847 Abide with me 미래와 소망
 W. H. Monk, 1861
 보물은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어두어지니
 1. 때저물 어서 날이 어두니 구 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2. 내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3.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 제나 나와 함께하소서
 4. 이 육신 쇠해 눈물감을 때 심 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하소서
 이 천지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는 주여 함께하소서
 주 같이누가 보호 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하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 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쉬운 기악코드(capo=3rd) Eb-C Bb7-G7 Cm-Am Ab-F Fm-Dm F-D C7-A7

■ 찬송에 얹힌 나의 이야기

흔히 젊음의 황금기라 말하는 20대 중반, 나는 멀고 먼 남국의 땅 월남에서 '자유를 위해' 조국 타이한 이름의 걸고 싸우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 우리는 날마다 어두운 정글을 뚫고 죽음의 발자국을 조심스레 밟으며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걷고 있었다. 찰나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은 허무할 정도로 너무나 순간적이고 짧기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차라리 총성과 포성으로 귀를 찢을 듯한 밤들은 우리의 맘을 편하게 했다. 칠흑갈

이 어둡고 고요로 뒤덮인 적막한 밤은 전신에 전율을 느끼게 하고,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는다. 땀은 비 오듯 하고, 숨소리조차도 폭포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리는 고요 속에, 술한 정글의 모기떼와 끈질긴 산거머리는 끝없이 우리를 괴롭혀오는데도 매복 때는 죽은 듯이 그대로 엎드려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긴장과 공포와 두려움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찬송가 481장의 가사가 떠오른 것이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전광석화 같이 번득 나의 뇌리를 스치는 이 찬송가 가사에 나는 마치 하나님을 직접 뵈옵기라도 한 듯 온몸을 부르르 떨며 가늘고 작지만 분명한 소리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를 외치고 또 외쳤다. 그리고 속으로 끝없이

이 찬송을 불러나갔다. 마치 오늘의 나를 위해 이 찬송가 가사가 쓰여진 것 같았다. 순간,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치를 떨고 있었던 나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맘에는 한없는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토록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리며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나를 주체 못 하게 만들었다.

■ 이 찬송가의 본래의 제목은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이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찬송가 작가인 '라이트' 목사가 건강이 악화되어 24년의 목회를 접으며 죽음에 대한 고별 설교를 한 후 쓴 찬송시를 훗날 윌리엄 헨리 몽크가 곡을 붙인 것이다.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은총의 손길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흥미롭게도 이 찬송가는 흔히 FA컵이라 부르는 영국 축구연맹컵 대회的主제가이기도 하다. 영국 런던올림픽 때도 참석자들이 '폐창'으로 이 찬송가를 불러서 더욱 유명하다. 사실 FA컵과 이 찬송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이 찬송가가 우리의 모든 삶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을 갈 때나, 잠들 때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나, 병들어있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영국인들은 FA컵 결승전이야말로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 생각되어 경기 전 모두가 일어나 'Abide with me'를 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김없이 이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부른다. 베트남 전장에서 얻었던 그 평안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내게 임하기를 바라서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부를수록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찬송가이다. 불평등상

그건 안되지~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



홍정우 안수집사

직장 사무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 법은 잘못된 법이고, 특히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자, 같은 사무실 직원이 모든 일에 대해서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법인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보수적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싸잡아 욕을 하면서 내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나는 그 직원에게 집에 결혼 적령기에 있는 아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어느 날 멋있고 잘생긴 청년을 집에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면서 “아버님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책상을 내리치면서 별떡 일어나 “그건 안 되지”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 직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법이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법이라고 설명을 하자, 자신도 이 법이 그런 법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고 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여학생에다가 “예쁘게 생겼네. 여자니? 남자니?”라고 묻자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커서 결정할 거예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옹호를 권장하고, 교육도 의무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6월 17일, 아내와 나는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 반대 집회에 다녀왔다. 동성애자들은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불법 점거한 후, 부스를 설치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혐오하지 말라.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문구를 부스에 붙여 놓고 부스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콩지머리를 한 남자 흑인이 까만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느끼한 음악을 틀어놓고 흐느적거리는 춤을 추자, 동성애자들이 부스에서 나와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무지개 천을 두르고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퀴어축제를 하는지 몰랐던 어느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나와 이들의 행위를 보고는 기겁하고는 소리를 질렀다. “저런 음란하고 퇴폐적인 짓을 하려면 산속이나, 섬에 가서 다른 사람들 안 보는 데서 해야지. 동성애가 좋으면 자기들끼리 하면 되잖아”라고 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한편, 날씨가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동성로 일대에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나와 퇴악별 아래에서 【대구 음란 동성애 행사 결사반대, 동성결혼 동성애 법제화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반대 집회를 하였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연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대구 시민들에게 ‘동성애가 죄악이고,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다. 이 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영



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성적 지향, 사상,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성경에는 동성애는 죄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창 19:1-13/레 18:22/롬 1:26-27/ 고전 6:9). 특히 로마서 1장 26-27절은 동성애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독특한 특징이고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차별하지 말라 혐오하지 말라’며 분노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성소수자 문제는 자기다움의 문제이므로, 나다움을 지키고 나답게 사랑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고 실존이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고용,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에서 차별되어서는 안 되고, 괴롭힘도 차별로 본다.

결국 동성애는 포스터모더니즘 사상으로,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나 크리스천 학교에서 직원을 채용공고 시 종교는 기독교, 세례교인일 것이라고 하면 차별의 대상이 되어 불교도나, 신천지, 동성애자가 지원해서 떨어져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입증책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괴롭힘도 차별로 봄으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하면 괴롭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삼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것도 위반 시마다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극동방송은 2020년 7월9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러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성애자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 1, 부모 2이라고 불러야 되며, 결국은 가정이 파괴된다. 일부 진영 목사



들이 동성애는 요즘 트렌드이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십계명을 어기면서 기독교인이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선지자의 역할로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과 진리를 선포하고, 둘째는 중보자의 역할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통과되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 하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전국의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 국민들에게 이 법이 악법임을 알려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거룩은 음란보다 강하고, 빛은 어둠보다 강하다. 불렙동상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버지!

천국에서 예수님도 할머니도 우리 엄마도 만나셔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죠?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이사하시고 난 후에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 계속 되뇌다가 몇 자 적어봅니다.

아버지 가신 지 백일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아버지께서 떠나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곧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 땅엔 안 계심을 깨닫고 화들짝 놀랄 때가 자주 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근검절약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시던 아름다운 삶! 2000년에 떠나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 23년을 홀로 외롭지만, 내색 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녀들 힘들지 않게 독립적으로 살아오신 귀한 삶을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하신 아버지의 분이 되는 귀한 삶에 감사드리며 추억합니다.

1996년에 초기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2003년에는 장 유착으로 소장을 80센티 이상 자르는 수술은 받으셨고 2016년에는 백혈병으로 70킬로 이상 나가신 건장한 몸은 50킬로로 야위셔서 이젠 가시는구나 싶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낫겠다.” 하실 만큼의 고통 중에도 힘든 치료 잘 받으시고 주님 은혜로 또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오셔서 체력은 많이 떨



정송희 권사

어졌지만, 외손자 결혼식 보러 미국까지 같이 다녀오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강을 위해 하루에 만 보 이상을 꾸준히 걸으시는 의지의 한국인이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마디 하실 줄 모르고 자녀 손들에 게도 그저 잘했다 칭찬과 격려 아끼지 않으셨던, 선한 영향력의 우리 아버지 모습이 몹시도 그리웁습니다.

작년 오월 88세 미수 생신 때 손자 집에서 생신 잔치하실 때도 고맙다고 하시며 활짝 웃으시며 건강하셨는데 그해 6월 말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진통제도 안 듣는다고 하시더니 세계에 50여 명밖에 없다는 희귀하고 독한 두경부암에 걸리셨다는 진단을 받으셨지요. 얼마나 극심한 통증인지!! 마약성진통제도 듣지 않아서 제가 기도하는 많은 분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알겠지만 통증 없이 가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50킬로 겨우 나가는 몸으로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방사선치료를 받는, 쉽지만은 않은 일정을 소화하게 하셔서 암 덩어리를 줄어든게 하시고 통증도 멎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올 4월부터 통증이 다시 시작되어서 새로 개발된 효과 좋은 신약 항암제의 임

상실험 대상이 되셔서 아버지와 온 가족은 희망을 품고 좋아했었지요. 하지만 결국 그 병마를 이기지 못하시고 임종의 시간을 맞게 되었지요. 정신이 맑으신 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찬송도 기도도 하셨고 저희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임종 예배 후 아버지의 후손들~4대가 모여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이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다고 인사드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 '주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를 비롯하여 밤새도록 계속 찬송을 불렀지요. 우린 한 사람씩 힘없는 아버지의 팔에 안기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눈물로 말씀드렸지요. 곁에서 제부가 "아버님~예수님 이 방에 오셨으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니 힘없던 오른손을 번쩍 드셔서 우린 모두 놀랐답니다. 임종이 가까우면 천사도 사단도 함께 온다더니 연신 눈을 들어 이쪽저쪽을 보시는 아버지는 천사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아닐 거라 확신하며 가족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로 가족들은 흩어졌고 계속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조용히 주무시는 아버지의 혈압은 자꾸 떨어져서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달려왔습니다. 결국 임종은 여동생과 둘이 지켰지요. 아버지 영혼이 떠나시고 난 뒤에 흥측하고 붉게 부어 있던 한쪽 얼굴이 평소와 똑같이 깨끗하게 되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이 서울에 거주하기에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 입관과 발인 예배를 집례하셨습니다. 하관 예배를 집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산에 올라오니 영정 사진이 가

장 눈에 띄었는데 지금 정기화 집사님은 저 모습보다 더 환하게 웃으시며 예수님 곁에 계신다'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는 모두 슬픔 중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았는데 장례 기간 내내 날씨도 맑았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봄날 맑은 날씨 속에 원도 한도 없이 하늘나라로 이사시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세 남매 우애 있게 다독이며 잘 살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망이 아버지 장례를 통해 더욱 돈독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구요.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남은 한가지 기도 제목은 남동생과 그 가족의 구원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도 기도해 주실 거죠?

아버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과 아버지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다시 뵈 때까지 천국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계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기화 아버지의 첫째 딸,
정송희 올림. 출판동상



두근 두근: 부정맥인가?



한성욱 집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내과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지 못한다. 갑자기 이상형을 만나거나 썸(?)을 타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맥박이 솟구치고 심장 박동이 느껴져서 두근두근하게 된다. 또 긴장하거나 흥분하면 손에 땀이 나고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되는 현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가슴 두근거림이 느껴지면 누구나 심장병이 아닌가, 특히 부정맥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된다.

진료를 봐야 할 두근거림의 원인은 다양하다. 따라서 두근거림이 있을 때 어떤 상황들은 심장 전문의를 만나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어떤 방법들로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두근거림이 있을 때 맥을 짚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흔히 드라마나 영



화에서 한의사가 진맥하듯이, 팔 안쪽을 하늘로 보게 하고 손목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의 약간 안쪽을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살짝 얹어서 느껴보면 자신의 맥박이 느껴진다. 너무 세게 누르면 만져지지 않으니까 살짝 얹어서 느껴야 한다. 만약 어려우면 목의 성대 뼈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나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근육에 부딪히게 된다. 그 자리에 손가락을 두고 고개를 앞으로 하면 맥이 느껴지게 된다. 두근거릴 때 맥을 짚어서 맥이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를 느껴본다. 부정맥이라면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한번씩 건너뛰기도 하고 맥박마다의 간격이 모두 다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심장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좋다. 맥박수를 15초 동안 얼마나 되는가를 헤아려서 곱하기 4를 하면 분당 맥박수가 나온다. 맥박수가 분당 40회 미만이거나 150회 이상이라면 역시 진료를 보는 것이 좋다. 가장 쉽게 일반인들이 부정맥을 진단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는 것이 필수다. 심전도는 가슴에 6개의 전극을 붙이고 양팔과 양다리에 전극을 붙여서 심장의 전기 흐름을 측정하는 간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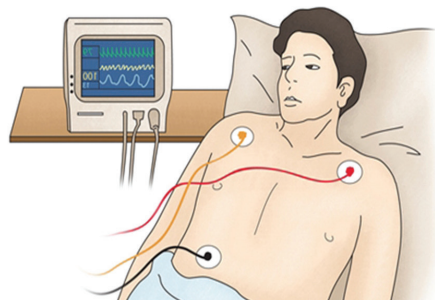
방법이다. 10초 동안의 심장 맥을 기록해서 부정맥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심장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용도 몇 천원으로 우리나라는 아주 싸다. 두근거림 증상이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근처의 내과나 응급실을 방문해서 심전도를 찍고 이상이 있다면 전문의 진료를 보면 되겠다. 하지만 부정맥의 상당 부분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증상이 없어서 심전도를 찍으면 정상으로 나타나 예전에는 정신질환으로 오진 되었던 사례들이 많다. 현재는 24시간 또는 1주일간 심전도를 차고 활동하면서 부정맥을 진단하는 기계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증상은 있는데 심전도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심장 전문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해서 이런 검사들로 부정맥 진단을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이 한 달에 한번 혹은 몇 달에 한번 나타나는 경우는 1주일간의 심전도로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환자가 심전도 기계를 갖고 다니다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어 의사에게 확인을 받는 방법들도 많이 이용된다. 예로 갤럭시 시계나 애플 시계는 심전도 기능이 있

고 그 외 환자가 구매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부정맥 전문의는 환자의 증상이 생기는 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진단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부정맥이란 심장병과 같이 포괄적인 병명이 아니고 특별한 진단명이 아니다. 한문 뜻 그대로 맥이 고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 중에는 가끔 급사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심전도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심장 초음파 등으로 심장 상태를 파악해서 부정맥 질환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면 된다.

두근거림의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가 정상맥으로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불안증 등이 원인일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혈압이 낮은 경우, 그 보상작용으로 맥박이 빨라지고 두근거림이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며칠간 밤샘 작업을 하고 많이 지친 상태도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고 몸 상태가 힘들어도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다.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는 맥을 짚어서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어서 진짜 부정맥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는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 **불덴동산**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 간	장 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대예배실
	3부 오전 11:30	대예배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1부 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2부 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본당지하아담스홀
구역장회	(화) 오전 10:00	본당지하아담스홀

기관명	시 간	장 소
영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2층)
유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3층)
유 치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3층)
초 등 1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6층)
초 등 2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7층)
초 등 3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4층)
초 등 4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6층)
중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아담스홀
고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베어드홀
청 년 1 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년 2 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장 년 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4층)
장 년 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 가 족 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본당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FM91.9)
예배실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불덴동산 제104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 제일 논단**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 기 타** 「불덴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원고 분량

A4 1.5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0

접수 마감

2023년 11월 25일 (토) 까지
* 원고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E-mail : fch_pub@naver.com

네이버 메일로 원고 접수
또는 홍보출판부(본당 4층), 행정실
카톡접수 :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유의 사항

원고 접수 시,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ch2532615@naver.com www.firstch.org

물단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